

당삼채 진묘수(镇墓兽) 도용(陶俑) 연구

Sculptural Research on Tri-colore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of
the Tang Dynasty

논문접수		심사(수정)		게재확정	
------	--	--------	--	------	--

당삼채 진묘수(镇墓兽) 도용(陶俑) 연구

Sculptural Research on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of the Tang Dynasty

목 록

개요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표
2. 연구 방법과 범위

II. 본론

1. 당삼채 진묘수의 개념과 출현

- 1) 진묘수의 개념
- 2) 진묘수의 출현

2. 티베트 흑도자기의 제작방법

- 1) 다양한 동물의 결합
- 2) 호인의 얼굴과 짐승 몸의 결합
- 3) 진묘수의 형태와 당삼채유약의 결합

3. 진묘수의 디자인 분석

4. 진묘수 도용의 성형 방법

- 1) 성형 방법과 소성
- 2) 흙의 종류
- 3) 소성 온도와 유약

5. 당삼채 진묘수의 소멸

III. 결론

사진 목록

참고 문헌

개요

본 논문은 당삼채 진묘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당삼채 진묘수의 조형 특징에 대해서 비교적 전면적인 정리를 하였다.

당삼채 진묘수는 당나라 귀족 묘실의 부장품 조각이었다. 고령토를 원료로 하고 도구와 수공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면에는 삼채유를 사용하였다. 초벌 온도는 1000도이며, 유약을 번조하는 온도는 800도이다. 일반적으로 2개가 함께 능묘에서 출토되었다. 당삼채 진묘수의 조형은 무섭고 유색은 화려하며 중국 조각사에서 매우 특이한 종류이다.

당삼채 진묘수 도용은 약 서기 7세기 말에서 8세기 중반에 출현하였다. 이 짧은 반세기는 당나라의 정치·경제·군사·문화 각 방면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이다. 경제의 발전·여러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중원지역의 심미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남·도자기 번조 기술의 발전 등은 당삼채진묘수의 시대적 배

경이다.

당삼채 진묘수 도용은 중국 당나라의 두 수도인 섬서성 서안시와 하남성 낙양시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천여 년 동안 사라졌다가 20세기 초에야 재발견되었다. 당삼채 진묘수는 동물의 이미지를 조각한 도용이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인면진묘수로 사람의 얼굴과 동물의 몸통이 결합한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수면진묘수로 사자의 머리와 동물의 몸통이 결합한 형태이다. 당삼채 진묘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닌 상상 속의 동물을 조각한 것이다. 몸통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맹수들로 조합하였다. 진묘수에 사용된 동물의 조형에는 사슴뿔·사자머리·사자 몸통·매 날개·말발굽·매의 발 등이 있다. 조각공들은 맹수들의 가장 공격적인 부분을 한 곳에 모았고, 호인의 분노한 얼굴 표정을 더하여 저승세계의 수호신으로 조합하였다.

본문에서는 당삼채 진묘수 각 부분의 조형적 특징과 역할에 대한 분석과 조각 기법의 각도에서 당나라 장인들이 조형을 왜 무섭게 만들었는지 조형을 어떻게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삼채 진묘수 도용의 문화적 가치를 한층 더 깊이 입증할 것이다.

중심어 : 당삼채 진묘수, 동물, 도용, 조각, 도기

Abstract

This paper takes th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as the object of study and m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sculpture characteristics.

Th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is a sculpture buried in the tombs of the aristocrats of the Tang Dynasty. It is made with Kaolin as raw material, also with molds and hand building. The surface is covered with three-color glaze, with bisque firing of 1000 ° c and glaze firing of glaze of 800 ° c. The human face tomb guarding beasts and the beast face tomb guarding beasts usually appear together in the tomb. With its terrible shapes and gorgeous glaz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is a very peculiar category in the history of Chinese sculptur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came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to the 8th century, this short half of century was a heyday of the period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cultural aspects in Tang Dynasty. The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reak through the aesthetic paradigm in the central plains, kiln technology development is the background of Tang tricolor tomb guarding beasts.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were found in the two capitals of the Tang Dynasty: Xi'an in Shanxi Province and Luoyang in Henan Province. However, those ceramic beasts disappeared with the fall of the Tang empire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before being rediscove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can be classified as animal sculpture with two forms, one is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with human face, i.e. the combination of human face and animal body; the other is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with animal face, i.e. the combination of lion head and animal body.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are not real animals, but imaginary ones. Each part of its body is composed of different beasts, include antlers, lion head, lion body, eagle wings, horseshoe and eagle claws. Sculptors combined the most aggressive parts of the beast with the angry facial expressions of the barbarians to form the patron saint of the underworld.

This paper will analyze the sculptur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each part of th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sculpture techniques, analyze why the craftsmen in the Tang Dynasty should make terrible modeling, and how to choose the modeling to further demonstrate the cultural value of the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in the Tang Dynasty.

Key words : Tang tri-colored tomb guarding beasts, animal sculpture, pottery, sculpture, ceramics

I. 서론

1. 연구 목적

고대의 중국 사람들은 생사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한나라 귀족계급에서는 장생불로 단약을 복용하는 풍조가 형성하였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중금속이 함유된 이러한 약품을 복용하면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저승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준비는 상류사회의 능묘에서 잘 나타났다. 당삼채 진묘수는 바로 묘 주인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부장품 조각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당나라의 당삼채 진묘수도용을 통해 조각의 조형 특징과 문화분석하여, 당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조각으로 생사의 관념을 전달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 당나라 귀족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죽음에 직면하였을 지를 이해하며 당삼채 진묘수 조각의 사실적인 미의 감각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문의 연구 방법은 역사문헌자료를 열람하여 당삼채 진묘수의 출현 시기 범위를 정리해내고, 중국국가박물관·낙양박물관·하남박물관·섬서역사박물관·서안박물관 등에 방문하여 당삼채 진묘수 조각을 관람하여 당삼채 진묘수의 조형 특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였다.

본문에서 연구하는 시기의 범위는 성당 서기 7세기 말에서 8세기 중반까지, 즉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인 측천무후의 집권 후반기부터 당 현종 이융기의 집권 시기까지이다.

본문에서 연구하는 지리적 범위는 섬서성 서안지역과 하남성 낙양지역에서 출토된 당삼채 진묘수이다. 이 두 지역은 모두 당나라의 수도였고, 국가의 지도자와 대신들이 생활했던 곳으로 사후에도 이곳에 묻혔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 당삼채 진묘수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당삼채 부장품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II. 본론

1. 당삼채 진묘수의 개념과 출현

당삼채 진묘수는 당나라 귀족묘실의 부장용 조각 도용(陶俑)이다. 형태가 동물과 유사하고 당삼채유를 입혔기 때문에 당삼채 진묘수로 불렸다. 당삼채 진묘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45cm에서 100cm 정도이며, 100cm가 넘는 소수의 진묘수들도 있다. 당삼채 진묘수는 인면진묘수<사람 얼굴을 가진 진묘수, 그림1~2>

와 수면진묘수<동물 얼굴을 가진 진묘수,그림3~4>로 나뉘는데, 두 조각은 일반적으로 묘실에 함께 나타나고 다른 두 개의 ‘천왕용(天王俑)’ 또는 ‘무사용(武士俑)’과 함께 ‘사신(四神)’을 이룬다. ‘사신’은 각각 ‘당초(當塲)’ · ‘당야(當野)’ · ‘조사(祖思)’ · ‘조명(祖明)’이다.¹⁾ 당초와 당야는 무사용과 천왕용의 이름이고, 조사는 인면진묘수의 이름이며 조명은 수면진묘수의 이름이다. 당삼채 진묘수는 일반적으로 묘실 문 뒤 그리고 묘주의 관곽(棺槨)²⁾ 앞에 배치한다.



진묘수는 당나라에만 있었던 부장용 조각이 아니다. 기존에 출토된 문물에 따르면 진묘수는 춘추전국 시대(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에 초(楚)나라 묘실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중국 하남성 · 섬서성 · 사천성 · 강소성 · 호남성 등과 같은 지역에서도 출토되었다. 현재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진묘수의 재질은 돌 · 나무 · 도기 · 구리 · 도기 등이 있다. 묘실의 주인은 주로 당시의 귀족 계층이었다. 진묘수의 주된 역할은 악령의 침입으로부터 주인으로 보호하고, 묘실 주인이 환생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섬서성 서안시와 하남성 낙양시는 모두 당나라의 수도였고, 정치 · 경제 · 군사 등의 중심지였다. 당나라 조정의 지도 계층은 수도에 거주하고 죽어서도 이곳에 묻혔기 때문에, 이 두 도시에서 당삼채 진묘수가 많이 출토되었다. 현재의 고고학 발굴 자료에 따르면, 당나라 삼채유 의 출현부터 번조(燔造) 기술이 성숙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시기까지는 대략 서기 7세기 말에서 8세기 중반까지라고 한다. 이는 당나라 전성기와 일치함으로 즉 당나라 황제 당 현종 이융기(李隆基)가 통치하던 개원성세(開元盛世)와 천보(天寶) 연간이다.³⁾ 8세기 중반에는 당나라에서 ‘안사의 난’이 발발하였다. 이 8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며 당삼채 진묘수도 함께 사라졌고, 심지어 천여 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잊혀졌다.

당삼채 부장토기의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다시금 인식되었다. 하남성 낙양 지역은 당삼채의 최초 발견지이다. 1905년~1909년 청나라 정부는 룡해철도(隴海鐵道)를 건설하면서 낙양 북쪽에 위치한 망산(邙山)의 당나라 묘실에서 대량의 다채로운 도기를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중화민국 초년 저명한 학자 나진옥(羅鎮玉)에게 북경 유리장⁴⁾에서 발견되어 책에 쓰이고 나서야 당삼채는 비로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1) 왕거비, 「사신, 건자, 고계」, 고고통신, 1956(05).

2) 관곽(棺槨): 시체를 담아두는 관

3) 범문연, 「당삼채의 기원과 분기」, 중공정주시위당교학보, 2010(02).

4) 중국 북경에 위치한 대형 골동품 거래시장, 청대에 기원하였다.

1) 진묘수의 개념

우선 당삼채 진묘수의 출현은 일정한 시대적 배경이 있다.

당삼채 진묘수가 성행했던 시기가 당나라 경제 전성기와 맞물리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당나라(서기 618년-907년)는 총 289년에 걸쳐 23명의 황제가 있었다. 당 현종 이융기는 개원성세(서기 713년-741년)를 열었고, 개원성세는 당나라 국력이 진정으로 강성했던 시기이며, 성당시기라고 불린다. 정치적인 면에서 조정은 3성6부제를 설치하여 엄밀하고 효과적인 국가 관리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과거제를 시행하여 민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인재를 선발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당 현종 시기의 인구는 7천만에서 9천만 사이였고, 1인당 식량 보유량은 7백 근 정도였다.⁵⁾ 1982년이 되어서야 중국의 1인당 식량 보유량이 다시 7백 근 정도에 도달하였다. 문화적인 면에서 성당시기에는 이백, 왕유, 맹호연 등과 같은 시인들이 등장하였고, 다른 문화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당 현종 이융기 역시 시를 짓고 작곡하는 데에 뛰어났으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사회 전반에 문화 교육을 중시하도록 이끌었다. 군사적인 면에서 당나라는 6개의 변방도호부를 설립하여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민족 관계를 해결하였고, 조정의 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으며 각국과 화친, 즉 당나라 공주를 외국 왕실에 시집을 보내고 국제관계를 유지하였다. 외교적인 면에서 당나라는 서역 36국과 로마·그리스·인도·이란·아라비아제국·조선·일본 등 국가들과 문화 교류를 유지하였고,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외국의 종교·미술·음악·무용·의상·음식·생활방식 등과 같은 문화적 성과를 거두었다. 7세기 말에서 8세기 중반까지의 당 왕조는 중국 역사상 경제가 번영하고 문화가 개방되었던 시대였다. 성당시기는 당삼채 진묘수의 출현에 있어서 사상적 기반과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당삼채 진묘수의 출현은 고대의 순장(殉葬)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왕이나 귀족 남성이 죽어서도 생전처럼 호화롭고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승에서 사용할 생활용품 그릇을 묘실에 묻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여인·신하·시종·포로 등도 죽여서 저승에서 주인의 시종을 들게 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국 귀족의 능묘에 매장된 진짜 사람과 동물에서 점차적으로 돌·나무·흙·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람과 동물을 매장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부장품의 변화 과정은 인간의 가치가 점차 중시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당삼채진묘수의 출현은 후장(厚葬)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중국인들이 부장품을 매우 중시한 것은 영혼이 불멸하고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현세와 같은 생활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떠나간 사람이 저승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로운 금은보화·생활용품·시종·가축 등을 관과 함께 매장한 것이다.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⁶⁾와 『당회요(唐會要)』⁷⁾에는 각기

5) 몽만(蒙曼), 몽만이 말하는 당나라의 장한가(長恨歌), 히말라야,

[BD/CD], <https://www.ximalaya.com/lishi/3667259/>, 2018-02-05/ 2019-9-9

6)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권삼 「서열하·잡제(序列下·雜制)」에는 '무릇 장례를 치르면 그 명기의 부류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공양하는 것은 별도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준비한다.) 삼품 이상은 구십사, 오품 이상은 육십사, 구품 이상은 사십사가 된다. 당초·당야·조명·지축·탄마·우인 등으로 각각의 높이는 일척이 된다. 나머지 음악대와 시종들에 대하여, 위엄한 태도와 복장 및 완구는 각각의 계급에 따른다. 기와나 나무로 하고, 길이는 대략 칠촌이다.(凡喪葬則供其明器之屬, (別敕葬者供, 余並私備。) 三品以上九十事, 五品以上六十事, 九品已上四十事。當壙、當野、祖明、地軸、誕馬、偶人。其高各壹尺; 其餘音聲隊與僮仆之屬, 威儀、服玩, 各視生之品秩所有, 以瓦、木為之, 其長率七寸。)'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등급의 관리들은 반드시 서로 다른 부장품의 수량과 치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관리들은 그들의 사회 계급을 훨씬 능가하는 부장품을 매장하였다. 부장품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고, 점점 더 사치스럽게 제작되었으며, 치수는 점점 더 증가하여, 후장하는 풍조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당삼채도용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다양한 기능도 갖춰지게 되었다. 생활용 그릇·인물 조각·동물 조각·건축 모형 등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당삼채 진묘수는 동물 조각으로 성당시기에 제조와 활용의 절정에 달했다.

2) 진묘수의 출현

당삼채 진묘수의 역할은 귀신을 쫓고 악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귀신을 겁주는 것은 당나라 때만 있었던 관념이 아니다. 상고시대부터 귀신관념은 중국의 문화발전과 함께 해왔는데, 이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우주와 생사를 이해하는 방법이었고, 저승에서 온갖 귀신과 요괴가 나타나 그 영혼을 해진다고 믿었다. 「좌전·선공삼년(左傳·宣公三年)」에는 ‘이매망량, 막능봉지(螭魅罔兩, 莫能逢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략적인 의미는 사람을 해치는 귀신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미망량(魑魅魍魎)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의 뇌와 심장 그리고 폐를 먹고 힘을 키우는 귀신을 일컫는 말이다. 이 밖에도 당나라에는 불교가 성행하였고, 불교에서 사람은 3개의 삶이 있다고 한다. 바로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이다. 무덤 주인이 다음 생을 향해 순조롭게 갈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 앞에서 서서 묘문을 향하고,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과 자세로 악귀들을 겁주어 물리치는 두 호위가 필요했다.⁸⁾ 고대 중국 이승의 인간사회에서 명문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저택 대문 앞에 돌사자 조각 두 개를 세워 주택을 지키는 것처럼, 이러한 풍습이 저승에도 적용되었다. 당나라 사람들도 무덤 주인의 관곽 앞에 두 개의 조형물을 세워서 음택(陰宅)을 지켰고, 묘 주인을 보호하였다. 이승의 생활습관을 저승까지 연장된 것은 중국 고대인들의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2. 당삼채 진묘수 도용의 조형적 특징

당삼채 진묘수를 주로 크게 분류되는데, 하나는 수면진묘수이고 다른 하나는 인면진묘수이다. 수면진묘수는 동물의 머리와 진묘수의 몸통이 결합한 것이고, 인면진묘수는 사람의 머리와 진묘수의 몸통이 결합한 것이다. 당나라 장례 풍습에 따르면, 당나라 능묘에서 진묘수는 일반적으로 쌍을 이루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 능묘에서 수면진묘수가 출토되면 인면진묘수도 출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능묘에서는 진묘수 조각이 하나만 출토된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7) 「당회요(唐會要)」 권삼십팔 「장(葬)」에는 「[원화] 6년 12월 문무과 및 서민의 장례에 관한 조례를 정하였다. 삼품 이상은 명기 구십사, 사신 십이시 내에…오품 이상은 명기 육십사, 사신 십이시 내에…구품 이상은 명기 사십사, 사신 십이시 내에…이전의 명기는 기와와 나무를 사용하였지만, 사신은 일척을 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인물들은 칠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서민은 명기 일십오사…사신십이시 각각의 예물들은 장만하지 않고 제조된 명기는 기와를 사용하도록 명하고 칠촌을 넘어서는 안 된다.([元和]六年十二月條流文武官及庶人喪葬。三品以上, 明器九十事, 四神十二時在內……五品以上, 明器六十事, 四神十二時在內……九品以上, 明器四十事, 四神十二時在內……以前明器, 並用瓦木為之, 四神不得過壹尺, 余人物等不得過七寸……庶人, 明器壹十五事……四神十二時各儀, 請不置, 所造明器, 並令用瓦, 不得過七寸。)」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수서·예의지삼(隋書·禮儀志三)」에는 ‘궁기(窮奇)와 조명(祖明) 같은 종류가 있다. 무릇 열두 짐승은 모두 털과 뿔이 있다. 취고령(吹鼓令)이 이끌고, 중황문(中黃門)과 이동하며, 의종들과 함께 악귀를 궤내에서 쫓아낸다.’하고 기록되어 있다.

1) 다양한 동물의 결합

중국 서안과 낙양 지역에서 대량의 당삼채 명기(明器)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하남 낙양에 위치한 낙양박물관과 섬서 서안에 위치한 섬서역사박물관에 진열된 당삼채 진묘수를 보면, 당삼채 진묘수의 조형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동물의 조합이다. 선택된 동물 부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슴뿔·사자머리·사자 갈기·돼지 귀·매 날개·사자 혹은 호랑이 몸통·말 다리·말발굽 혹은 매의 발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당삼채 진묘수는 실제 동물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을 조각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하지 않은 동물은 조각공의 창조를 거쳐 서로 다른 동물의 장점을 한곳에 모아 저승에서 주인을 수호하는 신수가 되었다.

사슴뿔 조형<그림5>. 일찍이 위진남북조시기의 초나라 묘에서 사슴뿔이 있는 나무 재질의 진묘수가 출토된 바가 있다. 사슴뿔의 역할은 독사를 쫓아내는 것이다. 중국의 고적 「포박자·등섭편(抱朴子·登涉篇)」에는 ‘미(목)야저개답사, 고이염지야(麋鹿)野豬皆啖蛇, 故以厭之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략적인 의미는 사슴과 멧돼지는 뱀을 잡아먹을 수 있어서 독사를 막는 데 사용된 것이다.⁹⁾ 이에 따르면 죽은 자는 땅 속 깊은 곳에 묻히는데, 땅 속은 뱀이 생활하는 곳이다. 독사가 시체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묘수에 사슴뿔 모양을 더한 것이다. 현재 발굴된 유물을 보면 당삼채 진묘수들은 모두 사슴뿔 모양을 하고 있다. 조형적인 면에서 그 특징은 우뚝 솟은 것이다. 한 종류의 조형은 머리 위에 사슴뿔 두 개가 각각 좌우에 세워져 있다. 어떤 것은 문양과 삼채유로 장식되어 있고, 어떤 것은 흰색의 화장토를 입혔다. 다른 한 종류의 조형은 사슴뿔 두 개가 엉켜져 있어서 마치 유니콘의 뿔처럼 머리 위에 세워져 있다<그림6>. 또 다른 한 종류는 머리 중간에 큰 사슴뿔이 세워져 있고, 작은 사슴뿔 두 개가 양옆에 각각 세워져 있다<그림7>. 뒤의 두 가지 사슴뿔은 주로 인면진묘수에서 나타난다.

사자머리 조형<그림8>. 당삼채 진묘수에 사자머리가 출현한 것은 아마도 당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불교는 중국 동한(東漢)시기(25년-220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당고조와 당 태종은 불교의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정관(貞觀)연간 전국에 있는 사찰 수는 3716개에 이른다.¹⁰⁾ 당 현종 개원26년(서기 738년)에 이르자 전국에 있는 사찰의 수는 총 5358개에 달하였고, 전국에 있는 스님은 126100명에 달하게 되었으며¹¹⁾, 불교가 성당시기에 중국인들의 사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교에서 사자는 부처인 석가모니의 탈것으로 신성한 동물이다. 당삼채 진묘수 사자머리 조형의 특징에는 부릅뜬 눈·넓은 코·벌려진 입·송곳니·드러낸 혀 등이 있다. 이러한 조형의 특징을 선택한 것은 사자머리를 더 험상궂고 무섭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부릅뜬 눈. 부릅뜬 눈은 안구가 돌출된 조형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조각기법은 불교 조각인 ‘노목금강(怒目金剛)’<그림9>의 조각기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金剛)’은 불교에서의 호법신으로 불교를 수호하고 신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직책이다. 당삼채 진묘수에 노목금강의 조형을 빌려 진묘수들이 어둠 속의 악귀를 보는 것을 표현하였고, 무덤 주인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9) 이봉, 진도길, 「성당 진묘수 형상의 내포된 의미 해독」, 진묘수에서 나타난 중국과 서양의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한 담론[J], 귀주교육학원학보, 2008(01).

10) 사산(2014), 「당대 불교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연구--불교의 발전과 정치사회간의 관계를 관점으로」, 하남대학박사학위논문.

11) 변광춘, 「서북도교력사개론」, 종교철학, 2008(12).



넓은 코는 사자의 머리 구조를 더욱 형상화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당삼채 진묘수는 넓은 코의 조형을 강화하였다. 콧방울이 확장되었으며, 콧대는 비교적 짧고, 콧구멍은 선명하게 보인다. 이는 수면진묘수의 강한 기운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더욱 과장되고 변형되어 보이게 할 수 있다.

벌려진 입. 사자는 보살이 난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佛法)을 전수할 때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다. 맹수가 습격해 올 경우에 사자가 포효하기만 하면 백수가 놀라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자는 중국에서 ‘백수의 왕’이라고 불린다. 당나라 사람들은 사자후(獅子吼)의 억지력이 저승에서도 악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는 조형을 사용하였다.

송곳니. 모든 당삼채수면진묘수들이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입안에 평평한 이빨이 가득하고, 어떤 것은 위아래 같은 위치에 송곳니 4개가 있다. 송곳니는 일반적으로 사자머리 정면과 측면이 전환되는 곳에 분포한다. 이러한 조각 기법은 사람들의 집 앞에 세워진 돌사자 조형과 유사하다.

드러난 혀.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혀가 드러난다. 당삼채수면진묘수 혀의 조형도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혀를 입 안에 평평하게 늘어놓았고, 어떤 것은 혀를 내밀고 있으며, 어떤 것은 혀끝을 말고 있다. 내밀고 있는 혀와 말려진 혀의 혀끝은 비교적 날카롭다.

사자 갈기 조형〈그림10〉. 당삼채 진묘수는 호랑이 머리에 매의 발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필자는 이와 다른 관점인 사자머리에 매의 발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당삼채수면진묘수에는 각기 다른 조형의 갈기가 있는데, 호랑이머리에는 갈기가 없기 때문이다. 갈기는 사자 지위의 상징이며, 왕성한 갈기는 수컷 호르몬 수준이 높고 신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진묘수의 전투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자 갈기는 수면진묘수에서만 있고 인면진묘수는 사자 갈기가 없다. 조각의 조형에서 보면 수면진묘수의 귀는 비교적 작고, 갈기는 귀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졌다. 갈기는 일반적으로 귀 뒤쪽 및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곳에 있으며, 머리·목·어깨 등 3개의 전환 구조를 연결한다. 갈기는 머리·목·어깨 등의 전환에 따라서 곡선형 장식이 나타나고, 장식성이 뛰어나며 조형은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어떤 갈기는 진흙 판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깃털의 외형을 대략적으로 새겼고〈그림11〉, 어떤 갈기는 깃털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새겼다〈그림12〉. 또 어떤 것은 독립적인 갈기 몇 가닥이 머리 옆에 세워져 있으며,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삼채유 장식도 있다. 이러한 조형은 수면진묘수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과 신성하고 위엄한 느낌을 준다. 이 중 가장 특별한 것은 중국 국가박물관에 진열된 당삼채

진묘수인데, 몸 뒤에 있는 사자 갈기는 마치 해초처럼 서 있고 구부러진 모습으로 요약되어, 마치 사나운 불길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으며 매우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그림13>.



돼지 귀 조형<그림14>. 돼지 귀는 당삼채인면진묘수에서 나타났으며, 수면진묘수에는 돼지 귀가 보이지 않았다. 「당삼채 진묘수 돼지 귀 조형의 문화적 의미와 기능의 전이」에서는 돼지 귀 조형의 문화적 의미를 전문적으로 탐구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멧돼지는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서 돼지형태의 신은 겁을 주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돼지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다. 저승은 음습하고 한랭하여 돼지는 무덤 주인을 지하에 고인 물의 부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셋째, 돼지는 복두칠성의 상징이다. 복두칠성은 재앙을 없애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¹²⁾ 조각의 조형에서 보면, 인면진묘수의 돼지 귀 조형은 약간 크다. 어떤 것은 심지어 사람의 얼굴보다 크다. 귓바퀴는 크게 펼쳐졌고, 위를 향해 퍼지며, 곡선과 주름이 있어 조형은 부채와 유사하다. 어떤 것은 붉은 색의 삼채유 장식이 있고, 어떤 것은 사람의 얼굴과 같이 삼채유를 입히지 않았다.

매 날개 조형<그림15>. 기록에 따르면 매를 길들이는 것은 당나라 귀족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활동이었다. 당나라 사람들이 매를 길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서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계 프랑스 역사학자 Mazalleri A.는 이란 문헌에 근거하여 매는 근동에서 중국 궁정으로 전해진 중요한 사냥매라고 지적하였다.¹³⁾ 갈승옹(葛承雍)은 「사냥매: 당나라 벽화와 시가가 함께 만들어낸 예술 형상」에서 당나라 사람들은 매가 하늘의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신성한 새로 여겼다고 언급하였다.¹⁴⁾ 중국에는 ‘여호첨익(如虎添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호랑이 몸에 날개를 더했다는 뜻으로 원래 강력했던 것이 도움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것을 비유하기도 하고, 흉악한 사물이 도움을 받으면 더 흉악해지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조각의 조형에서 보면, 당삼채 진묘수의 매 날개는 비교적 거칠게 만들어졌으므로, 주변의 섬세하게 그려진 갈기·사자머리 등과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매의 날개는 진흙 판 하나를 통째로 진묘수의 어깨에 붙이고, 삼채유를 점채(点彩)의 방식으로 장식하였다<그림16>. 아마도 색의 층차(層差)로 깃털의 층차감을 암시한 것이다. 어떤 것은 아예 같은 삼채유를 사용하고 요유

12) 질양, 「당삼채 진묘수 돼지 귀 조형의 문화적 의미와 기능의 전이」, 중국도자, 2015(01).

13) Mazalleri A.(2014), 「실크로드: 중국-페르시아 문화교류사」, 중국장학출판사.

14) 갈승옹, 「사냥매: 당나라 벽화와 시가가 함께 만들어낸 예술 형상」, 서화연구, 2019(05).

(澆釉) 기법으로 장식하였다<그림17>. 그리고 약간 정교하게 만든 매의 날개도 있지만, 대개 진흙 판으로 깃털의 곡선 여섯 개를 갈라냈을 뿐, 출토된 날개 중에 무늬가 새겨진 것은 비교적 적다. 낙양과 서안에 전시된 수많은 진묘수들 중 오직 2개의 수면진묘수만이 매 날개의 층차를 매우 세밀하게 조각하였다<그림18>. 이 진묘수는 또한 낙양박물관의 명품이므로 별도로 진열되었다. 매의 날개가 좀처럼 정교하게 조각되지 않는 데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매의 날개는 대부분 공중에 떠 있고 앞의 일부분만 짐승의 몸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조할 경우에 붕괴 및 부서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다음으로 실제 깃털은 세밀하고 복잡한 중첩된 구조가 많은데, 도토(陶土)는 건조 과정에서 쉽게 부서진다. 그래서 너무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았다. 때문에 대부분 당삼채 진묘수의 매 날개는 도토의 재료 특성으로 인해 사슴뿔이나 사자머리처럼 사실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사자 혹은 호랑이 몸통 조형<그림19>. 사실 당삼채 진묘수의 몸통이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아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한 정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자는 불교의 신수이고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다. 이 두 동물은 하나는 숲에서 살고 하나는 초원에서 살지만, 중국인의 마음속에는 왕의 상징이기에 사자든 호랑이든 진묘수 몸이라는 가설은 일리가 있다. 조각의 조형에서 보면, 수면진묘수와 인면진묘수의 몸통은 모두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받침에 웅크려 앉아 있으며, 받침의 높이는 전체 조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둔부(臀部)는 바닥에 닿고 양 앞다리를 곧추세우며 기다리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 두 뒷다리의 모양은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두 뒷다리는 몸통에 바짝 붙어 있다. 조각의 중심 전체가 몸통 한가운데 있으며 조각의 대부분의 무게를 지탱한다. 이외에도 모든 조각들은 약간 고개를 치켜들고 심지어 뒤로 젖히는 각도를 보인다. 아마도 도기를 번조(燔造)할 때 진묘수가 고개를 숙이거나 기울고 있으면, 가마가 가열되었을 때 중심이 불안정해져 조각이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묘수는 두 앞다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몸통과 예각 삼각형을 이루어 커다란 사슴뿔·사자머리·돼지 귀 등과 같은 조형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

말 다리 조형<그림20>. 중국은 상(商)대(약 1600년 전·1406년 전) 만기에 야생마를 길들여 우리에게 넣고 가축으로 사육하였다.¹⁵⁾ 당나라는 말을 몹시 사랑했던 시대이었고, 당나라는 장기간 중국의 동북·서북·

서남 등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으며, 군마는 중요한 군비물자였다. 이 밖에도 당나라 사회에는 말과 관련된 오락 활동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말 길들이기 공연·말춤 등이 있다. 당대에는 말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대화가 염입본(閻立本)과 한간(韓干)이 있었고,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은 그와 함께 전쟁을 했던 여섯 필의 전마를 기리기 위해 능묘석조 「소릉육준(昭陵六駿)」을 제작하도록 명했었다. 말은 왕권의 상징이자 귀족문화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 말이 달리는 속도는 보통 시속 20km이고, 최대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 악귀를 쫓기 위해서는 진묘수에 말 다리의 힘과 속도를 더한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조각의 조형에서 보면, 말 다리의 조형은 굵고 힘차며 근육은 팽팽한 상태이다. 마치 당장 앞으로 달려가 악귀를 덮치려는 듯하다. 근육의 윤곽과 말 다리 관절은 모두 조각되었고, 관절의 주름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음각선(陰刻線)으로 면과 면의 전환을 표현하였다.

말발굽 조형<그림21>. 서안과 낙양 두 도성에서 출토된 당삼채 진묘수의 문물을 보면, 하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면진묘수와 인면진묘수의 발 부분은 말발굽 조형이 사용되었다. 말발굽은 진묘수에게 빨리 달리고 매섭게 찬다는 명확한 기능을 부여하였다. 말은 영역의식이 매우 강한 동물이다. 당나라 귀족인 무덤 주인들은 마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의 영역의식과 순발력 그리고 달리는 속도가 필요하였다. 조각의 조형에서 보면, 말발굽의 조형은 매우 간단하면서 사실적이므로, 실제의 말발굽과 별 차이가 없으며, 삼채유로 장식되어 있다.

매의 발 조형<그림22>. 모든 진묘수의 다리에 말발굽 조형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낙양박물관에 진열된 한 무리의 진묘수에는 매의 발이 사용되었다. 전투력으로 보면, 비록 매는 덩치가 호랑이나 준마(駿馬)보다 크지 않지만 전투력이 매우 강하다. 매는 하늘의 맹금이며 굵은 갈고리 형태의 날카로운 발이 있고, 하늘에서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고 사냥감을 잡아가는 것을 잘한다. 진묘수에게 날개에다가 발까지 더하면 매처럼 악귀에게 치명적인 추격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의 발 조형도 아마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적으로 조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 발의 발톱은 가늘고 뾰족하며, 발톱 길이는 발가락과 비슷하며 발가락 또한 상대적으로 가늘다. 하지만 이 진묘수의 발은 좌우 말 다리에서 작은 발가락이 하나 더 발견되지 않았다면 호랑이발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매의 발 조형은 짧고 굵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발톱도 삼각형 뿔 형태에 가까운 모양으로 짧고 뾰족하게 제작되었다. 아마도 앞다리와 받침의 접촉 면적을 늘려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갈고리 형태의 발톱을 의도적으로 추상화한 것일 수 있다.



<그림18> 매

<그림19> 사자

<그림20> 말

<그림21> 말발굽, 수면진묘수

<그림22> 매의 발

15) 원정, 「중국고대 가정용 말에 대한 연구」, 중국고고망,

[DB/CD], <http://www.kaogu.cn/html/cn/xueshuyanjiu/yanjiuxinlun/kejikaogu/2013/1025/33562.html>, 2009-01-12/2019-09-09

날개,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혹은 호랑이 몸통, 인면진묘수, 하남박물관	다리, 인면진묘수, 섬서역사박물관	낙양박물관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	-----------------------	-------	--------------

앞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당삼채 진묘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을 선택했으며, 각기 다른 동물의 가장 공격적인 부분을 조합한 것이 조형의 주요 특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조각 기법은 사실적이지만 표현의 대상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러한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맹수는 다양한 맹수의 우세한 힘을 결합시켜, 매우 사나운 모습으로 저승세계에 맞서고 주인의 안녕을 지킨다.

2) 호인(胡人) 얼굴과 짐승 몸의 결합

또 다른 당삼채 진묘수의 조형은 사람의 얼굴과 짐승 몸의 결합이며 인면진묘수라고 한다. 인면진묘수 얼굴 조형의 특징은 당나라 불교의 '금강역사(金剛力士)' 조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삼채 진묘수에서 인면진묘수의 얼굴 모양은 동시대의 금강역사 조각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23). 금강역사는 인도 고대 신화에서 유래하였고, 나중에는 부처에게 귀의하여 호법(護法)이 되었다. 금강역사는 금강과 같은 단단한 몸집과 대력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의 선교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불교는 동한시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 들어왔고, 성당시기에는 불교가 성행하였으며, 중국인의 사상관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중국인들이 인과응보와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등의 관념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금강역사들의 안면 골격 조형은 높은 전두골·높은 미능골(眉稜骨)·깊은 안와(眼窩)·높은 비골·높은 광대뼈 등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금강역사 얼굴의 오관(五官) 조형에는 찌푸리는 눈썹·부릅뜬 눈·넓은 코·입을 벌리고 호통을 치거나 입을 다물고 거절하는 형상 등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두개골 구조나 오관에서도 중국인이 아님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인면진묘수들도 앞서 언급한 어굴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그림 24~26). 만약 금강역사가 부처를 천계와 인간세계에서 보호하는 수호신이라면, 인면진묘수는 죽은 자를 저승에서 보호하는 수호신이다. 인면진묘수는 금강역사의 조형 특징을 빌려 단단한 몸과 대력신의 힘을 얻어 무덤 주인을 지키고 악귀를 쫓아낸다.

인면진묘수의 얼굴은 인도 불교 금강역사의 조형에서 따온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면진묘수는 호인의 조형이다. 호인은 당나라가 서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오늘날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이란·아프가니스탄 등 약 36개 국가를 포함한다.¹⁶⁾ 당나라는 이러한 나라들과 무역 거래와 문화 교류를 하였다. 그래서 당나라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에 이은 또 하나의 민족 대통합의 시대였다. 당 태종 이세민 황제는 동·서 돌궐족(지금의 중국 신장·외몽골·러시아·터키 등 나라)의 백성들에게 '천가한(天可汗)'이라 불렀으며, 이는 바로 온천하의 왕이다. 이 세민의 뒤를 이은 7대의 황제들은 모두 천가한의 존호를 받았었다. 그리하여 모든 서역국가의 종교는 중국에서 선교가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원시종교(사만교를 포함)·배화교·도교·마니교·경교·이슬람교 등이 있었으며, 불교는 당연히 포함되었다. 당나라는 불교를 주요 종교로 하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구도였다.

16) 「서역은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것인가? 서역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는가?」, 역사필기, [DB/CD], http://www.lishibiji.cn/post/209_all.html, 2017-04-11/2019-9-9



인면진묘수의 얼굴 특징은 금강역사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금강역사는 불교 금강역사 조형에서 유래되었고,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났으므로, 인면진묘수의 얼굴 특징은 인도 사람들의 얼굴 특징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같은 시기의 다른 불교 금강역사 석굴조각 및 사찰조각과 동일한 얼굴 특징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낙양 봉선사(奉先寺) 좌측 벽의 역사(力士) 석조〈그림27〉¹⁷⁾·경선사(敬善寺) 역사 석조〈그림28~29〉·돈황 막고굴 194호 석굴 역사〈그림30~31〉 등¹⁸⁾이 있다.



3) 짐묘수의 형태와 당삼채유약의 결합

당삼채 진묘수는 저온유(低温釉) 도자기이다. 이러한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흰색 점토로 태를 만들었으며, 유약에는 구리·철·금강석·망간 등과 같은 원소를 함유한 광물 염색제가 들어 있으며, 약 800°C의 온도를 거쳐 구워졌다. 그래서 진묘수의 유색은 짙은 녹색·엷은 녹색·청록색·남색·황색·흰색·적갈색·갈색 등 다양한 색채가 있다. 삼채토기유약에는 대량의 납이 들어 있다. 납의 산화물은 용융제로 유약의 용융 온도를 낮춘다. 가마에서 번조(煑造)할 때 각종 착색 금속산화물이 연유(鉛釉)에 용해되고 사방으로 퍼지고 흐르며, 여러 가지 색이 서로 어우러져 찬란한 채색유(彩色釉)를 형성한다. 납의 또 다른 기능은 유약의 광도를 높이고 색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다.¹⁹⁾ 옛날 사람들은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

17) 장내저(2008), 「불교미술전집5 : 용문불교조상」, 문물출판사, p144.

18) 원추실(2015), 「용문석굴역사조상연구」, 남경대학석사학위논문.

19) 중국규산염학회(2011), 「중국도자기사」, 문물출판사, p214.

을 의식하였기 때문인지 삼채유는 부장품으로만 사용되었고 생활용 그릇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고고학에 의하면, 삼채유는 당대에 갑자기 나타난 유약이 아니다. 양한(兩漢)시기(기원전 202·220년) 중국에서는 연청유(鉛靑釉)도자기를 만들어 냈고, 남북조시기(420년·589년)에는 한나라의 단색(單色) 연유(鉛釉)을 바탕으로 황색·갈색·녹색 등 세 가지 색채를 함께 사용한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기술들은 7세기 중엽부터 7세기 말까지 초당(初唐)시기 당삼채의 탄생에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²⁰⁾

당삼채 진묘수의 세 도깨 특징은 유약과 조각 조형이 서로 결합한 선택적 시유(施釉)이다. 유약을 입히는 주된 방법은 큰 면적에 요유(澆釉)하는 것과 작은 면적에 점유(點釉)하는 것이다. 대부분 수면진묘수의 사슴뿔·얼굴·몸통에는 큰 면적에 요유를 사용하였고, 일부 진묘수들만이 점유를 사용하였다. 유색은 조형에 따라 주변의 유색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게 되어 유색에 변화를 준다. 특히 진묘수의 갈기와 날개 두 곳에는 점유의 방법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 수면진묘수 얼굴의 오관은 세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의 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큰 면적에 요유를 하여 오관이 식별하기 힘든 사태를 방지하였다. 인면진묘수의 얼굴에는 모두 유약을 입히지 않았으며 흰색의 소태(素胎)를 유지하였고, 눈·입술·귀 등에 붉은 색의 채색 안료를 입힌 경우도 있다. 사실 당삼채의 거의 모든 인물 도용은 얼굴에 유약을 입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시녀용·문관용·호인용 등이 있다. 아마도 변화가 풍부한 삼채유는 ‘화점’을 만들어 얼굴의 오관을 가리고 난잡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3. 진묘수 디자인 분석

진묘수의 조형 분석 - 동물 신체 부분				
사슴뿔 형태	사자머리 형태	사자 갈기 형태	돼지 귀 형태	매 날개 형태
				
<그림 32> 수면진묘수의 사슴뿔 형태, 낙양박물관	<그림 33> 수면진묘수의 사자머리 형태, 낙양박물관	<그림 34> 수면진묘수의 사자 갈기 형태, 낙양박물관	<그림 35> 인면진묘수의 돼지 귀 형태, 낙양박물관	<그림 36> 인면진묘수의 매 날개 형태, 낙양박물관
진묘수의 조형 분석 - 동물 신체 부분			호인검	
사자 혹은 호랑이 몸통 형태	말 다리 형태	말발굽 혹은 매의 발 형태	1.대뇌대 2.추미 3.대안정 4.관비자 5.장취혹폐취 6.표정가파	

20) 범문연, 「당삼채의 기원과 분기」, 중공정주시위당교학보, 2010(02)



4. 진묘수 도용의 성형 방법

1) 성형 방법과 소성

당삼채 진묘수는 직접성형·금형성형·점착성형 등과 같은 조각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당삼채 진묘수의 제작 방법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필자는 섬서역사박물관에서 문물 안내원을 취재하고 나서야 당삼채 진묘수는 대형 부장품 도용이고, 조형은 비교적 복잡하며 각기 다른 조각 기법을 함께 사용해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삼채 진묘수는 도자기 조각이다. 다른 도자기 조각처럼 진묘수 조각에도 인물과 동물 도자기 조각의 제작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즉 직접성형·금형성형·점착성형 등과 같은 조각 기법을 혼용하였을 것이다.

현재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미 ‘조명(祖明)’이라는 글자가 찍혀있는 진묘수 도범(陶範)이 발견되었다. 왕거비는 「사신, 건자, 고계」에서 ‘조사(祖思)와 조명(祖明)’²¹⁾은 당나라 때 인면진묘수와 수면진묘수를 지칭하는 명칭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고고학계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당삼채진묘수 조각에 금형성형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필자가 낙양박물관·중국국가박물관·섬서역사박물관·서안박물관·하남박물관 등을 답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묘수 전신에는 뚜렷한 금형을 합쳐 생긴 선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선이 정성스럽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금형이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경우에 금형으로 만들 수 있는 조형은 금형에서 꺼낼 수 있는 조형이다. 당삼채진묘수 전신에서 금형으로부터 꺼내기 쉬운 조형은 몸통과 양 앞다리이다. 금형 또한 흙으로 제작하였고 일정한 흡수성이 있다. 조각의 디테일한 부분은 직접 조각하여 형태를 완성하였다. 예를 들면 인면의 구조와 수면의 구조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똑같이 생긴 인면진묘수나 수면진묘수를 본 적이 없다. 조각을 통해 형태를 완성해야 하는 부분은 사슴뿔·사자 갈기·날개·매의 발 등도 있다. 이 몇 부분을 흙으로 직접 조각한 후 흙탕물을 이용해 본체에 붙이면 진묘수 도자기 소태가 완성된다.

당삼채 진묘수의 소성 방법은 모든 당삼채 부장품들의 소성 방법과 동일하다. 진묘수 소태가 완전히 건조된 후 가마에 넣어 초벌을 하여 소태가 일정한 강도를 얻게 한다. 뒤에 이어지는 가공 과정에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차 소성 과정 이전에 하자가 있는 반제품을 선별할 수 있어 재료 낭비를 줄일 수

21) 왕거비, 「사신, 건자, 고계」, 고고통신, 1956(05).

있다. 초벌이 끝난 후에 유약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재벌을 한다.

당삼채를 번조했던 가마터는 주로 서안과 낙양 두 수도 주변 지역에 있었다. 예를 들면, 섬서동천요주요지(陝西銅川耀州窯址)·섬서황보진당삼채요지(陝西黃堡鎮唐三彩窯址)·하남공현당삼채요지(河南鞏縣唐三彩窯址)·하북(河北) 내구(內丘)와 임성(臨城)·사천공래당대자요(四川邛崃唐代瓷窯) 등이 있었다. 섬서성 서안시 예천방요지(醴泉坊窯址)에서 진묘수 잔편이 출토된 적이 있으며, 이 가마터는 성당시기에 당삼채진묘수를 번조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²⁾ 이 외에 또 다른 진묘수를 번조했던 장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고학적 발굴을 기다려야 한다.

2) 흙의 종류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당삼채진묘수의 흙을 전문적으로 분석 및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 「황야요 당삼채 원료 산지에 대한 연구(黃冶窯唐三彩原料產地研究)」²³⁾에서 논증한 것에 따르면 당삼채 부장품에 사용된 흙은 고령토이다. 진묘수는 당삼채 동물 조각 부장품의 한 종류로 당삼채 말과 낙타 같은 다른 부장품 조각처럼 고령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소성 온도와 유약 재료

당삼채진묘수는 시요(柴窑)를 사용하여 초벌을 하였고 온도는 1100도 정도이며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였다. 재벌 온도는 800도이다. 산화되는 상황에서 함철량 높으므로 소성 온도는 낮아져야 한다.²⁴⁾

현재까지 출토된 당삼채진묘수의 유색 효과에 근거하면, 유약을 입히는 공예에는 주로 점유(點釉)·도유(塗釉)·요유(澆釉) 등 3가지가 있다. 점유는 작은 면적의 구역에, 도유는 중간 면적의 구역에, 요유는 큰 면적의 구역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당삼채진묘수는 대부분 도유와 요유를 사용하였다. 사슴뿔·머리·사자 갈기·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날개 등과 같은 곳에는 도유를 사용하였고, 각기 다른 유색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인접한 두 깃털에는 서로 다른 유색을 사용하였다. 몸통·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날개·두 앞다리 등과 같은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요유를 사용하게 적합하였고 삼채유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묘수 전신에 점유를 사용한 경우도 있으며 녹색·갈색·담황색으로 반점을 구성하였다. 모든 진묘수 중에서 일부 수면진묘수의 얼굴에는 유약을 입히지 않았고, 모든 인면진묘수의 얼굴에는 유약을 입히지 않았다. 이외에는 진묘수에 유약을 입히는 방식에는 규칙이 없었고, 주로 제작자의 기분 따랐다.

유약의 발색 원리 표²⁵⁾

색상	기본 유약	주요 발색제
유백색		산화납 (PbO) 이산화 규소 (SiO_2)
은백색		산화 아연 (ZnO)

22) 손금(2010), 하남지구출토당삼채연구, 정주대학석사학위논문

23) 동군령, 조유연, 유국동, 승환생, 요영민, 장송림, 황야요당삼채원료산지에 대한연구, 원자핵물리평론, 2008 (04)

24) 흑려나(2019), 당삼채와 요삼채 제작 공예 비교 연구, 내몽고사범대학석사학위논문

25) 출처: 낙양박물관 당삼채 전시관 사진

갈홍색	산화납 (PbO) 이산화 규소 (SiO_2) 산화칼슘 (CaO) 산화마그네슘 (MgO) 산화칼륨 (K_2O) 산화나트륨 (Na_2O) 산화 알루미늄 (Al_2O_3) 산화철 (Fe_2O_3)	산화 구리 (CuO) 붕산 (H_3BO_3)
종홍색		붕산 (H_3BO_3) 이산화망간 (MnO_2)
담황색		삼산화안티모니 (Sb_2O_3)
심록색		삼산화크롬 (Cr_2O_3)
담청색		이산화티타늄 (TiO_2)
천람색		산화 구리 (CuO) 산화코발트 (Co_2O_3)
청흑색		이산화망간 (MnO_2)

5. 당삼채 진묘수의 소멸

755년 12월 16일부터 763년 2월 17일까지 당 현종이 매우 총애하였던 당나라 변경의 군사장교 안록산(安祿山)(터키와 이란인의 후예)은 반란의 전쟁인 안사의 난을 일으켜 당 현종의 정권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 내부 전쟁은 당나라의 부를 거의 소진시켰고, 몇 년간 35,928,723명의 인구를 잃었으며²⁶⁾, 서안과 낙양은 더 이상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백성들은 생활이 전쟁의 영향을 받아 중국 남부로 대거 이주하면서 당나라가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산 사람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데, 돈을 들여 죽은 사람을 위해 부장품을 마련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당삼채 진묘수들은 이렇게 당나라 무덤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비록 당나라는 없어졌지만, 당삼채가 미친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 이후의 왕조에서는 요(遼)삼채·송삼채·명삼채·청삼채 등이 나타났었다. 당삼채 도자기의 장식 기법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페르시아삼채·신라삼채·나라(奈良)삼채·이집트삼채²⁷⁾ 등이 출현하였으므로, 당대는 대외적으로 개방되었었고 국제 교류가 활발했던 시대였음을 입증하였다.

III. 결론

당삼채 진묘수에는 사실적인 조형 특징이 있으며 표현적인 조형 특징도 있다.

진묘수의 사슴뿔은 실제 사슴뿔을 조형의 기초로 삼았고, 사자머리·사자 몸통·말발굽 등도 실제 동

26) 「통전권제칠·식화칠·역대성쇠호구(通典卷第七·食貨七·歷代盛衰戶口)」에는 ‘천보 14년에서 간원 3년까지 손실된 가구는 총 5,982,584호, 손실된 인구는 총 35,928,723명이다.(自天寶十四年至幹元三年, 損戶總五百九十八萬二千五百八十四, 損口總三千五百九十二萬八千七百二十三)’라고 기록되어 있다.

27) 유이생, 「세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원소: 자기」, Google book.
[DB/CD], <https://books.google.co.kr/books?id=306IDAAQBAJ&pg=PT41&dq=%E5%9F%83%E5%8F%8A%E4%B8%89%E5%BD%A9&hl=en&sa=X&ved=0ahUKEwikha3zt8PkAhXxG6YKHYYwnDyMQ6AEIMzAB#v=onepage&q=%E5%9F%83%E5%8F%8A%E4%B8%89%E5%BD%A9&f=false>, 2019-09-09

물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은 동물이다. 실제 맹수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모방하면 조각에 맹수의 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것들이 사자머리·매의 날개·팔발굽 등으로 각기 다른 맹수의 공격력을 집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면, 귀신 또한 보자마자 진묘수는 이러한 동물들의 공격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적인 기법으로 당삼채 진묘수를 조각한 것은 당나라 사람들이 진묘수가 정말로 이러한 맹수들을 뛰어넘는 살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였다.

당삼채 진묘수의 사실적인 모습은 아마도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교감무술(交感巫術)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즉 한 물체에 영향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교감무술과 같은 사고방식은 기나긴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보존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용기와 결심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고방식을 필요로 했을 수도 있다.

당삼채 진묘수는 현대 사람들에게 당나라의 뛰어난 도용 조각 기예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종교관념과 생사관념을 반영하였으며, 현대 사람들이 당나라 조각 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진묘수를 활용한 현대 도예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림 목록

- <그림1> 인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2> 인면진묘수 일부, 낙양박물관
- <그림3>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4> 수면진묘수 일부, 낙양박물관
- <그림5> 사슴뿔,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6> 사슴뿔, 인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7> 사슴뿔, 인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8> 사자머리,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9> 노목금감불상
- <그림10> 사자 갈기,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11> 사자 갈기,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12> 사자 갈기,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13> 사자 갈기, 수면진묘수, 중국국가박물관
- <그림14> 돼지 귀, 인면진묘수, 하남박물관
- <그림15> 매의 날개,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16> 매의 날개, 점채(點彩) 장식,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17> 매의 날개, 요유(澆釉) 장식,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18> 매의 날개,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19> 사자 혹은 호랑이 몸통, 인면진묘수, 하남박물관

- <그림20> 말 다리, 인면진묘수, 섬서역사박물관
- <그림21> 말발굽,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22> 매의 발, 수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23> 금강역사상, 성당채소, 돈황 45호 석굴
- <그림24> 인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25> 인면진묘수, 낙양박물관
- <그림26> 인면진묘수, 하남박물관
- <그림27> 봉선사 좌측 벽 역사의 일부, 석굴 조각상, 낙양시 용문석굴, 당대
- <그림28> 경선사 우측 역사의 일부, 석굴 조각상, 낙양시 용문석굴, 당대
- <그림29> 경선사 좌측 역사의 일부, 석굴 조각상, 낙양시 용문석굴, 당대
- <그림30> 돈황 막고굴 194호 석굴 북측 역사, 감소성 돈황시, 당대
- <그림31> 돈황 막고굴 194호 석굴 남측 역사, 감소성 돈황시, 당대
- <그림32> 수면진묘수의 사슴뿔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33> 수면진묘수의 사자머리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34> 수면진묘수의 사자 갈기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35> 인면진묘수의 돼지 귀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36> 인면진묘수의 매 날개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37> 인면진묘수의 사자 혹은 호랑이 몸통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38> 인면진묘수의 말 다리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39> 인면진묘수의 말 다리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40> 인면진묘수의 매의 발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41> 인면진묘수의호인의 얼굴 형태, 낙양박물관
- <그림42> 인면진묘수의호인의 얼굴 형태, 낙양박물관

参考文献

- 왕거비(1956), 「사신, 건자, 고계」, 고고통신.
- 범문연(2010), 「당삼채의 기원과 분기」, 중공정주시위당교학보.
- 왕원조(2013), 「선진에서 진한까지 인순에서 용순의 풍속 변천과 비교 연구」, 섬서사범대학석사학위논문.
- 소승(당조), 「대당개원례」.
- 왕부(북송), 「당회요」.
- 여사면(2005), 「수당오대사」, 상해고적출판사.
- 위정(서기 629년), 수서.
- 이봉, 진도길(2008), 「성당 진묘수 형상의 내포된 의미 해독 · · 진묘수에서 나타난 중국과 서양의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한 담론」, 귀주교육학원학보.

사산(2014), 「당대 불교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연구--불교의 발전과 정치사회간의 관계를 관점으로」, 하남 대학박사학위논문.

변광춘(2008), 「서북도교력사개론」, 종교철학.

질양(2015), 「당삼채 진묘수 돼지 귀 조형의 문화적 의미와 기능의 전이」, 중국도자.

Mazalleri A.(2014), 「실크로드: 중국-페르시아 문화교류사」, 중국장학출판사.

갈승웅(2019), 「사채매: 당나라 벽화와 시가가 함께 만들어낸 예술 형상」, 서화연구.

장내저(2008), 「불교미술전집5: 용문불교조상」, 문물출판사.

원추실(2015), 「용문석굴역사조상연구」, 남경대학석사학위논문.

중국규산염학회(2011), 「중국도자기사」, 문물출판사.

범문연(2010), 「당삼채의 기원과 분기」, 중공정주시위당교학보.

두우(서기 801년), 「통전」.

유이생(2015), 「세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원소: 자기」, 원화문창출판사

唐三彩镇墓兽陶俑研究

Sculptural Research on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of the Tang Dynasty

目錄

摘要

Abstract

I. 緒論

1.研究目標

2.研究方法和範圍

II. 本論

1. 唐三彩镇墓兽的概念和出现

1) 镇墓兽的概念

2) 镇墓兽的出现

2. 唐三彩镇墓兽陶俑的造型特征

1) 多种动物组合

2) 胡人脸与兽身组合

3) 镇墓兽的形态与唐三彩釉结合

3. 镇墓兽的造型分析

4. 镇墓兽陶俑的成型方法

1) 成型方法和烧成

2) 土的种类

3) 烧成温度和釉料

5. 唐三彩镇墓兽的消失

III. 結論

图片目录

参考文献

摘要

本论文以唐三彩镇墓兽为研究对象,对唐三彩镇墓兽的造型特点做了较全面的梳理。

唐三彩镇墓兽是唐朝贵族墓室里的陪葬品雕塑,以高岭土为原料,用模具成型和手工成型为制作方法,表面有三彩釉,初烧温度为1000度,釉烧温度为800度。通常两个一起在陵墓中出现。唐三彩镇墓兽造型可怕,釉色华丽,是中国雕塑史中非常奇特的门类。

唐三彩镇墓兽陶俑出现于约公元7世纪末到8世纪中期,这短短的半个世纪是唐朝政治,经济,军事,文化各方面走向鼎盛的时期,经济发展,多国文化交流,突破中原地区审美范式,陶器烧造技术发展是唐三彩镇墓兽的时代背景。

唐三彩镇墓兽陶俑集中出土于中国唐朝的两个首都:陕西省西安市与河南省洛阳市,又随着唐朝的灭亡消失了一千多年,直到20世纪初才被重新发现。唐三彩镇墓兽是动物雕塑俑,有两种形式,一种是人面镇墓兽,即人脸与动物身体结合,一种是兽面镇墓兽,即狮头与动物身体结合。唐三彩镇墓兽做的不是真实存在的动物,是想象中的动物,身体各个部分由不同的猛兽组合而成,镇墓兽用到的动物造型有:鹿角,狮头,狮身,鹰翅,马蹄,鹰爪等。雕塑工匠把猛兽最具有攻击性的部分加在一起,还结合胡人愤怒的面部表情,组合成阴间世界的守护神。

本文将通过分析唐三彩镇墓兽各个部分的造型特点和作用,并从雕塑技法的角度分析唐朝工匠为何要将造型做得可怕,如何对造型做选择来进一步论证唐三彩镇墓兽陶俑的文化价值。

关键词:唐三彩镇墓兽,动物,陶俑,雕塑,陶器

Abstract

This paper takes th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as the object of study and m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sculpture characteristics.

Th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is a sculpture buried in the tombs of the aristocrats of the Tang Dynasty. It is made with Kaolin as raw material, also with molds and hand building. The surface is covered with three-color glaze, with bisque firing of 1000 ° c and glaze firing of glaze of 800 ° c. The human face tomb guarding beasts and the beast face tomb guarding beasts usually appear together in the tomb. With its terrible shapes and gorgeous glaz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is a very peculiar category in the history of Chinese sculptur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came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to the 8th century, this short half of century was a heyday of the period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cultural aspects in Tang Dynasty. The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reak through the aesthetic paradigm in the central plains, kiln technology development is the background of Tang tricolor tomb guarding beasts.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were found in the two capitals of the Tang Dynasty: Xi 'an in Shanxi Province and Luoyang in Henan Province. However, those ceramic beasts disappeared with the fall of the Tang empire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before being rediscove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can be classified as animal sculpture with two forms, one is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with human face, i.e. the combination of human face and animal body; the other is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with animal face, i.e. the combination of lion head and animal body.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are not real animals, but imaginary ones. Each part of its body is composed of different beasts, include antlers, lion head, lion body, eagle wings, horseshoe and eagle claws. Sculptors combined the most aggressive parts of the beast with the angry facial expressions of the barbarians to form the patron saint of the underworld. This paper will analyze the sculptur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each part of the Tang tri-colored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sculpture techniques, analyze why the craftsmen in the Tang Dynasty should make terrible modeling, and how to choose the modeling to further demonstrate the cultural value of the ceramic tomb guarding beasts in the Tang Dynasty.

Key words : Tang tri-colored tomb guarding beasts, animal sculpture, pottery, sculpture, ceramics

I. 緒論

1. 研究目標

中国古人对生死之事有两种态度，一种是对抗死亡，汉代贵族阶层形成了服用长生不老丹药的潮流，但当时的人并不知道服用这些含有重金属的药品会死得更快。另一种是迎接死亡，并为阴间世界做准备。这种准备在上流社会的陵墓中得到很好的表现。唐三彩镇墓兽就是为了保护墓主的灵魂安息而出现的陪葬品雕塑。本论文的研究目的是通过对唐代唐三彩的镇墓兽陶俑来分析雕塑的造型特征和文化内涵，揭示唐朝人如何用雕塑传达生死观念，以理解中国唐朝贵族如何看待死亡，面对死亡，并分析唐三彩镇墓兽雕塑的写实性美感和表现性美感。

2. 研究方法和範圍

本文的研究方法：通过查阅历史文献资料，整理出唐三彩镇墓兽出现的时间范围，并到中国国家博物馆，洛阳博物馆，河南博物院，陕西历史博物馆，西安博物院参观唐三彩镇墓兽雕塑，总结唐三彩镇墓兽的造型特点。

本文研究的时间范围：盛唐公元七世纪末期到八世纪中期，也就是中国唯一一位女皇帝武则天的执政后期到唐玄宗李隆基的执政时期。

本文研究的地理范围：陕西省西安地区和河南省洛阳地区出土的唐三彩镇墓兽。这两地都是唐朝的首都，是国家领导人和大臣生活的地方，他们死后也埋葬在这里，所以这两个地区集中出土了数量庞大的唐三彩陪葬品，其中包括唐三彩镇墓兽。

II . 本論

1. 镇墓兽的概念和出现

唐三彩镇墓兽是唐代贵族墓室的陪葬雕塑陶俑，因造型类似动物并施以三彩釉，故得名唐三彩镇墓兽。唐三彩镇墓兽的大小一般在45厘米左右到100厘米左右，也有少数镇墓兽高于100厘米。唐三彩镇墓兽分为人面镇墓兽<人的面部组成的镇墓兽，图1~2>和兽面镇墓兽<动物的面部组成的镇墓兽，图3~4>，两座雕塑一般同时出现在墓葬中，与另外两座“天王俑”或者“武士俑”组成“四神”。 “四神”是“当圻，当野，祖思，祖明”。¹⁾当圻和当野是武士俑或天王俑的名字，祖思是人面镇墓兽的名字，祖明是兽面镇墓兽的名字。唐三彩镇墓兽的摆放位置一般是墓室门后且墓主棺槨²⁾前。



镇墓兽并不是唐代才有的陪葬雕塑。根据现有出土文物，镇墓兽最早出现在春秋战国时期（公元前770年 - 公元前221年）的楚国墓室中，在中国的河南省、陕西省、四川省、江苏省、湖南省等地区都有出土。目前考古发掘出的镇墓兽材质有石、木、陶、铜、陶。墓室的主人主要为当时的贵族阶层。镇墓兽的

1) 王去非,四神，巾子，高髻[],考古通讯,1956(05)
2) 棺槨：装尸体的木头容器

主要作用是保护主人免遭恶鬼的侵扰，守卫墓室主人转世。

陕西省西安市和河南省洛阳市都是唐朝的首都，是政治、经济、军事中心，唐朝朝廷的领导阶层居住于首都，死后也被埋葬于此，所以这两个城市都出土了大量唐三彩镇墓兽。据目前的考古发掘资料记载，从唐朝三彩釉的产生到烧制技术成熟并大量应用的时期是大约公元七世纪末期到八世纪中期，正好与唐朝的全盛时期相吻合，即唐朝皇帝唐玄宗李隆基统治下的开元盛世和天宝年间。³⁾ 八世纪中期，唐朝爆发“安史之乱”，这场8年的战争导致唐朝灭亡，唐三彩镇墓兽也随之消失，甚至被中国人遗忘了一千多年。

唐三彩陪葬陶器被中国人再一次认识是因为一次意外发现。河南省洛阳地区是唐三彩的最早发现地。1905年-1909年，清朝政府修建陇海铁路，在洛阳北部邙山的唐墓中发现了大量多彩釉陶器，起初并未引起学术界的关注，直到民国初年被著名学者罗镇玉在北京琉璃厂⁴⁾发现，写入书籍，唐三彩才被认定其历史价值。

1) 镇墓兽的概念

首先，唐三彩镇墓兽的发生有一定的时代背景。

唐三彩镇墓兽的盛行时期与唐朝经济最强盛时期相吻合并不是巧合。唐朝(618年-907年)共历时289年，共有23位皇帝，唐玄宗李隆基开创了开元盛世(公元713-741)，开元盛世是唐朝国力真正的鼎盛时期，称之为盛唐时期。政治上，朝廷设立三省六部制，形成严密有效的国家管理体系。并实行科举制，从民间选拔治国人才。经济上，唐玄宗时代国民人口在7千万到9千万之间，人均粮食占有量为7百斤左右。1982年中国人均粮食占有量才再一次达到7百斤的水准。⁵⁾文化上，盛唐时代出现了李白，王维，孟浩然等诗人，其它文化领域也有重大发展，唐玄宗李隆基也擅长写诗，作曲，他对文化的热爱引领全社会重视文化教育。军事上，唐朝设立六个边疆都护府，处理与周边国家的军事冲突和民族关系，加强朝廷对边疆的统治，并与各国和亲，即把唐朝公主嫁给外国王室，维护国际关系稳定。外交上，唐朝对外与西域36国以及罗马、希腊、印度、伊朗、阿拉伯帝国、朝鲜、日本等国家保持着文化交流，并利用丝绸之路为中国带来了外国宗教、美术、音乐、舞蹈、服饰、美食、生活方式等文化成果。7世纪末到8世纪中期的唐朝是中国历史上经济繁荣，文化开放的时代。盛唐时期为唐三彩镇墓兽的发生奠定了思想基础和经济基础。

其次，唐三彩镇墓兽的发生是为了替代古代人殉制度。

为了使帝王以及贵族男性死去后仍然能过上和生前一样奢华便利的生活，除了埋葬死后在阴间会用到的生活器皿到墓室里，还要屠杀死者生前喜欢的女人、臣子、侍从、俘虏等，在阴间继续服侍主人。随着时代变迁，中国贵族陵墓中从埋陪葬的真人、真动物，逐渐发展到埋葬石头、木头、泥土、金属做的假人，假动物。陪葬品的变化过程是人的价值逐渐被重视的过程。

再次，唐三彩镇墓兽的发生源于厚葬文化。

古代中国人之所以非常重视陪葬品是因为相信灵魂不灭，相信逝去的人在阴间过着和阳间一样的生活。为了保证逝去的人在阴间过得富足，就把丰富多样的金银财宝，生活用品，侍从，家畜与棺材埋在一起。

3) 范文娟,唐三彩的起源和分期[J],中共郑州市委党校学报,2010(02)

4) 位于中国北京的大型古董交易市场，起源于清代。

5) 蒙曼,蒙曼说唐之长短歌,喜马拉雅, [DB/CD],<https://www.ximalaya.com/lishi/3667259/>, 2018-02-05/2019-9-9

在《大唐开元礼》⁶⁾和《唐会要》⁷⁾中明确记载了不同等级的官员必须遵守不同的陪葬品数量和尺寸要求，然而依旧有很多官员埋葬了远超他们社会阶级的陪葬品，陪葬品的数量越来越多，制作越来越奢华，尺寸越来越大，逐渐演变成厚葬之风。因为以上原因，唐三彩陶俑的制作越来越精良，功能也越加齐全，有生活器皿、人物雕塑、动物雕塑、建筑模型等类别。唐三彩镇墓兽作为动物类雕塑在盛唐时期达到了制造和应用的顶峰。

2) 唐镇墓兽的作用

唐三彩镇墓兽的作用是驱鬼辟邪。

震慑鬼怪并不是唐朝才有的观念。从上古时代开始，鬼神观念一直伴随着中国的文化发展，这是古代中国人理解宇宙和生死的方法。他们相信阴间可能会出现各种鬼怪来残害其灵魂，《左传·宣公三年》中记载：“螭魅罔两，莫能逢之。”大意是害人的鬼怪，不是人能够碰得到的。魑魅魍魉(chī mèi wǎng liǎng)专指这种在阴间吃死人脑子和心，肺来增强自己力量的鬼怪。此外，唐朝盛行佛教，佛教讲人有三生三世，即过去的人生，现在的人生，未来的人生。为了保护墓主一路顺利走向下一世的道路就需要两位能震慑鬼怪的护卫立在棺材前面，面朝墓门，以和鬼一样可怕的面容和姿态来吓退恶鬼。⁸⁾就像在古代中国的活人社会，名门望族一般会在大宅门前竖立两尊狮子石雕来镇宅，这种习俗也应用在阴间。唐朝人也为墓主的棺椁前竖立两座雕塑来镇阴宅，保护墓主，将活人社会的生活习惯延续到阴间正是中国古人“事死如生”观念的体现。

2. 唐三彩镇墓兽陶俑的造型特征

唐三彩镇墓兽主要分大类别，一类是兽面镇墓兽，一类是人面镇墓兽。兽面镇墓兽是动物头部与镇墓兽身躯的结合；人面镇墓兽是人的头部与镇墓兽身躯的结合。按照唐墓丧葬习俗，镇墓兽在唐墓中一般是对出现，也就是说陵墓中出土了兽面镇墓兽就会出土人面镇墓兽。但也有少数墓葬只出土一只镇墓兽雕塑，原因未知。

1)，多种动物组合

中国的西安和洛阳地区集中出土了大量唐三彩明器，就位于河南洛阳的洛阳博物馆和位于陕西西安的陕西历史博物馆陈列的唐三彩镇墓兽来看，唐三彩镇墓兽的造型特点之一是多种动物组合。所选取的动物部位按从头到脚的顺序是：鹿角、狮头、狮鬃毛、猪耳、鹰翅、狮身或虎身、马腿、马蹄或鹰爪。可以说，唐三彩镇墓兽一定不是模仿真实的动物，而是塑造想象中的动物。这种不存在的动物经过雕塑工匠的塑造将不同动物的优势集中在一起，成为在阴间为主人保驾护航的神兽。

鹿角造型<图5>。据《大汉园陵秘藏经》记载，早在魏晋南北朝的楚墓中就曾出土有鹿角的木质镇墓

6) 《大唐开元礼》卷三〈序列下·杂制〉：“凡丧葬则供其明器之属，（别敕葬者供，余并私备。）三品以上九十事，五品以上六十事，九品已上四十事。当圻、当野、祖明、地轴、诞马、偶人。其高各一尺；其余音声队与僮仆之属，威仪、服玩，各视生之品秩所有，以瓦、木为之，其长率七寸。”

7) 《唐会要》卷三十八〈葬〉：“〔元和〕六年十二月条流文武官及庶人丧葬。三品以上，明器九十事，四神十二时在内……五品以上，明器六十事，四神十二时在内……九品以上，明器四十事，四神十二时在内……以前明器，并用瓦木为之，四神不得过一尺，余人物等不得过七寸……庶人，明器一十五事……四神十二时各仪，请不置，所造明器，并令用瓦，不得过七寸。”

8) 《隋书·礼仪志三》：“有做旁奇、祖明之类，凡十二兽，皆有毛角，鼓吹令率之，中黄门行之，冗从仪射将之，以逐恶鬼于禁中。”

兽。鹿角的作用是驱赶毒蛇。据中国古籍《抱朴子·登涉篇》记载：“麋（鹿）野猪皆啖蛇，故以厌之也。”大意是鹿和野猪能吃蛇，所以被用来抵御毒蛇。⁹⁾死去的人深埋在地下，地下也是蛇生存的地方，为了驱赶毒蛇来侵扰尸体，就在镇墓兽上加鹿角造型。就目前发掘的文物来看，唐三彩镇墓兽都有鹿角造型。从雕塑造型上看，其特点是挺拔，高耸。有一类造型是两只鹿角分别立在头顶左右两边，有的有纹饰及三彩釉装饰，也有上了白色化妆土；另一类造型是两只鹿角纠缠在一起，像独角兽一样立在头顶中间<图6>；还有一类是一只大鹿角立在头顶中间，两边分别立着两只小鹿角<图7>。后两类鹿角主要出现在人脸镇墓兽中。

狮头造型<图8>。唐三彩镇墓兽出现狮头可能和唐朝人信仰佛教有关。佛教在中国东汉时期（25年-220年）由印度传入中国，唐高祖，唐太宗扶持佛教发展，贞观年间，全国寺数已有3716所。¹⁰⁾到唐玄宗开元二十六年（公元738年），全国寺院总数达5358所，全国僧尼总数126100人¹¹⁾，佛教在盛唐时期中国人的思想中占有越来越重要的位置。在佛教中，狮子是佛祖释迦摩尼的坐骑，是神圣的动物。唐三彩镇墓兽的狮头造型特点有：瞪眼、宽鼻、张嘴、尖牙齿、露舌头。选择这些雕塑造型可以让狮头看起来更狰狞，更可怕。

瞪眼，瞪眼以眼珠突出的造型来表现，这种雕塑手法可能来源于佛教雕塑“怒目金刚”<图9>的塑造方法。“金刚”是佛教中的护法神，主要职责是守护佛教，保护信众。唐三彩镇墓兽借用怒目金刚的造型来表现镇墓兽睁大眼睛以看清黑暗中的恶鬼，强调其守护墓主的职责。



宽鼻，也许是为了更形象地模仿狮子的头部结构，唐三彩镇墓兽加强了宽鼻造型，鼻翼扩张，鼻梁较短，鼻孔清晰可见，不仅能强调兽面镇墓兽的强悍气息，也能加强脸部整体结构的夸张和变形。

张嘴，狮子是保护菩萨在乱世中向世人传法的守护神，当有猛兽来袭，狮子一声怒吼就能吓退百兽，所以狮子在中国被称为“百兽之王”，唐朝人相信狮吼的威慑力在阴间也能吓退恶鬼，所以使用了张大嘴做怒吼状的造型。

尖牙齿，并非所有唐三彩兽面镇墓兽都有尖牙齿，有的满口为平牙，有的上下皆有4颗尖锐的牙齿，位置为上下对齐。尖牙一般分布在狮头造型的正面与侧面的转折处。这种雕塑手法和立在一般人家门前的石

9) 李峰,陈涛吉,盛唐镇墓兽形象内涵解读——兼谈镇墓兽所体现的中西文化交流问题[J],贵州教育学院学报,20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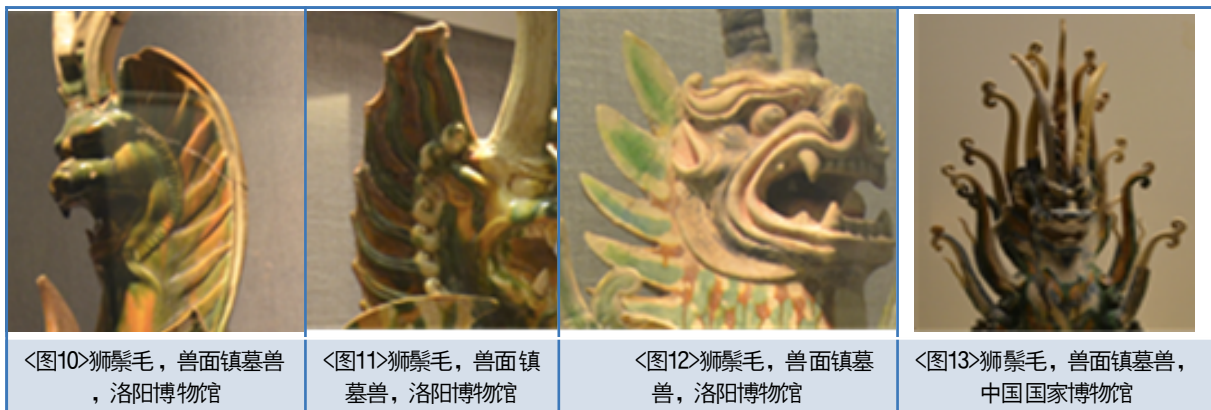
10) 谢山(2014),唐代佛教兴衰研究——以佛教发展与政治社会关系为视角,河南大学博士学位论文

11) 樊光春,西北道教历史概论[J],宗教哲学,2008(12)

狮子造型类似。

露舌头，狮子大张口自然会露出舌头。唐三彩兽面镇墓兽的舌头造型也各有不同。有的将舌头放平在口腔内，有的会吐舌头，有的舌尖上卷，吐舌和卷舌的舌尖都比较尖。

狮鬃毛造型<图10>。有文献认为唐代镇墓兽是虎头鹰爪，笔者有不同观点，应是狮头鹰爪，因为所有唐三彩兽面镇墓兽都有造型不同的鬃毛，而老虎头上没有鬃毛。鬃毛是狮子地位的象征，旺盛的鬃毛表明雄性激素水平高，身体更强壮，暗示镇墓兽战斗力很强。狮鬃毛只出现在兽面镇墓兽中，人面镇墓兽则没有狮鬃毛。从雕塑造型上看，兽面镇墓兽的耳朵较小，鬃毛的塑造比耳朵更精彩。鬃毛一般位于耳朵后侧与颈肩处，连接头，颈，肩三个转折结构。鬃毛会随着头颈肩的转折出现弧线形装饰，富有装饰性，造型呈现规律性变化。有的鬃毛用整块泥板塑造，并概括出羽毛的外形<图11>，有的具体地则刻出羽毛的形状<图12>；有的以单独的几束鬃毛立在脑侧，呈火焰一般向上升腾的造型，并有三彩釉装饰。这一造型使兽面镇墓兽更有怒发冲冠，神圣威武的感觉。其中最特别的一尊是陈列在中国国家博物馆的唐三彩镇墓兽，身后的狮鬃毛被概括成像海草一样站立且弯曲向上的造型，如在烈火中升腾，十分具有想象力<图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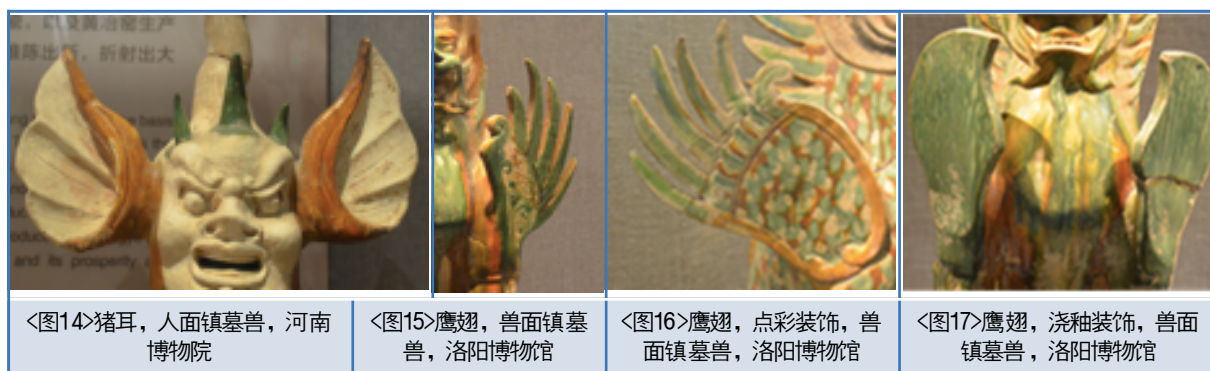
猪耳造型<图14>。猪耳出现在唐三彩人面镇墓兽中，兽面镇墓兽不见猪耳。《唐三彩镇墓兽猪耳造型的文化意义及其功能转移》一文中专门探讨了猪耳造型的文化内涵。归结起来有三点：一，野猪勇猛，擅长打斗，猪形神有震慑守护意义。二，猪是水神，阴间潮湿阴冷，猪能保护墓主免受地下积水的腐蚀。三，猪是北斗星的象征，北斗星可以消灾，获得福报。¹²⁾从雕塑造型上看，人面镇墓兽中的猪耳造型偏大，有的甚至大过人脸，耳廓大张，向上飘逸，有弧度和褶皱，造型类似扇子。有的以红色三彩釉装饰，有的与人脸一样不上三彩釉。

鹰翅造型<图15>。据记载，驯鹰猎鹰是唐朝贵族非常喜爱的活动，唐朝人喜欢驯鹰猎鹰很可能受到西域文化的影响。伊朗裔法籍史学家阿里·玛扎海里（Mazalleri A.）依据伊朗文献指出鹰是从近东传入中国宫廷的重要猎禽。¹³⁾葛承雍在《猎鹰：唐代壁画与诗歌共创的艺术形象》一文中提到，唐人认为老鹰可以与天神沟通，所以被认为是神鸟圣禽。¹⁴⁾中国有句成语叫“如虎添翼”，即老虎的身上长了翅膀，比喻原本

12) 郅阳,《唐三彩镇墓兽猪耳造型的文化意义及其功能转移》,《中国陶瓷》,2015(01)

13) 阿里·玛扎海里(2014),《丝绸之路:中国-波斯文化交流史》,中国藏学出版社

强大的事物得到援助后变得更加强大，也比喻凶恶的事物得到援助后变得更加凶恶。从雕塑造型上看，唐三彩镇墓兽的鹰翅塑造得比较粗糙，与周边被精细刻画的鬃毛、狮头等形体不协调。有的鹰翅直接用一整块泥板黏贴在镇墓兽肩膀上，以点彩方式用三彩釉装饰（图16），可能是用颜色的层次感暗示羽毛的层次感；有的干脆就用同一种三彩釉浇釉装饰（图17）。也有稍微做得精细一些的鹰翅，但也只是大概用泥板切割出六根羽毛的弧度，翅膀有刻花的出土得比较少。在洛阳和西安展出的众多镇墓兽中，只有2尊兽面镇墓兽十分精细地雕刻了鹰翅的羽毛层次，分别以翅膀骨骼、两种短羽毛和一种长羽毛四种结构来塑造鹰翅的造型（图18）。这件镇墓兽也是洛阳博物馆的精品，被单独陈列。鹰翅很少被精细刻画是有客观原因的。首先，由于鹰翅大部分悬空，只有前面一小部分粘在兽身上，烧造时很容易出现坍塌、断裂等问题；其次，真实的羽毛有很多细小且复杂的叠加结构，而陶土在干燥的过程中容易断裂，所以不宜塑造过于精细复杂的结构。所以大部分唐三彩镇墓兽的鹰翅因为陶土的材料特性而没能像鹿角或狮头那样写实。



狮身或虎身造型（图19）。其实唐三彩镇墓兽的躯干是狮子还是老虎并不容易分别，学术界目前也还没有明确定论。狮子是佛教神兽，老虎是百兽之王，这两种动物一个生活在森林，一个生活在草原，在中国人的心里都是王的象征，无论以狮子还是以老虎为镇墓兽的身躯都有道理。从雕塑造型上看，兽面镇墓兽和人面镇墓兽的躯干都呈蹲坐姿势，蹲坐在底座上，底座的高度大约占整体雕塑的五分之一。臀部着地，两前肢直立，呈等待观望的姿势。两后肢的塑造相对简洁，两条后腿紧靠着躯干主体，整个雕塑的中心落在躯干正中间，承受雕塑的大部分重量。此外，所有雕塑都呈现略微昂头甚至挺直后仰的角度。可能是考虑到陶器烧制时如果镇墓兽低头或者歪头，窑升温时可能造成中心不稳，导致雕塑烧塌。所以镇墓兽两个前肢略微向前伸出，与身体组成锐角三角形，能稳定地撑住硕大的鹿角，狮头，猪耳等造型的重量。

马腿造型（图20）。中国在商代（约前1600年—前1046年）晚期就驯服了野马，以家畜圈养。唐朝是酷爱马的时代¹⁴⁾，唐朝常年与中国东北，西北，西南国家征战，战马是重要军备物资。此外，唐朝社会也有关于马的娱乐活动，比如打马球，驯马表演，马上舞乐等，唐代有专长画马的大画家阎立本，韩干，唐太宗李世民命人做陵墓石雕《昭陵六骏》，以纪念陪他征战的六匹战马，马既是王权的象征，也是贵族文化生活不可缺少的部分。马的奔跑速度一般为每小时20公里，最快能达到每小时60公里，为追逐驱赶恶鬼，镇

14) 葛承雍，猎鹰：唐代壁画与诗歌共创的艺术形象[J]，书画研究，2019（05）

15) 袁靖，中国古代家马的研究，中国考古网。

[DB/CD], <http://www.kaogu.cn/html/cn/xueshuyanjiu/yanjiuxinlun/kejikaogu/2013/1025/33562.html>, 2009-01-12/2019-09-09

墓兽加上马腿的力量和速度是最好的选择。从雕塑造型上看，马腿的造型粗壮有力，肌肉呈紧绷状态，仿佛立刻要向前扑倒恶鬼。肌肉线条用和马腿关节都有塑造，关节的褶皱用面积比较宽的阴刻线条来表现面与面的转折。

马蹄造型<图21>。以西安与洛阳两座都城出土的唐三彩镇墓兽文物来看，除了一例，几乎所有的兽面镇墓兽和人面镇墓兽的足部都使用了马蹄造型。马蹄给了镇墓兽明确的功能——跑得快与踢得狠。马的领地意识很强，唐朝贵族墓主正需要马的领地意识，爆发力和奔跑速度来保护自己。从雕塑造型上看，马蹄的造型很简单也很写实，与真实的马蹄没有区别，有三彩釉装饰。

鹰爪造型<图22>。并非全部镇墓兽腿部都是马蹄造型，洛阳博物馆陈列的一组镇墓兽用到了鹰爪。从战斗力上讲，老鹰尽管没有老虎和骏马体积大，但也有很强的战斗力。老鹰是空中猛禽，有弯钩利爪，擅长从天上冲向猎物，抓走猎物。镇墓兽有了翅膀再加上利爪，就能像老鹰一样给恶鬼致命追击。但鹰爪的造型可能也因为材料特性而不写实。鹰爪的指甲，又细又尖，指甲长度约等于趾头，趾头也相对细小。但是这座镇墓兽的爪子如果不是在左右马腿上还分别发现有一个小趾头，很容易让人误以为是虎爪。整个鹰爪造型塑造得不仅短且粗壮，其指甲也塑造成近似于三角锥形状，短且尖锐。可能是为了增加前肢与底座的接触面积以增加稳定性而刻意抽象化其弯钩指甲。



综上所述不难看出，唐三彩镇墓兽选择的都是人间最凶猛的动物，将不同动物最有攻击力的部分组合到一起是其主要造型特征。其雕塑手法是写实的，表现对象是想象的。这种人间不存在的猛兽结合了多种猛兽的优势力量，以极其凶狠的姿态面对阴间世界，守护主人的安宁。

2) 胡人脸与兽身组合

另一类唐三彩镇墓兽的造型是人脸与兽身的结合，称为人面镇墓兽。人面镇墓兽的面部造型特点可能来源于唐代佛教的“金刚力士”雕塑。

唐三彩镇墓兽中人面镇墓兽的脸部造型与同时期的金刚力士雕塑非常相似<图23>。金刚力士来源于古代印度神话，后被佛祖收服成为护法。金刚力士有金刚一样坚硬的身躯，有大力神的力量，为佛祖传教清除障碍。佛教自东汉时期从印度传入中国，盛唐时期非常盛行佛教，是构建中国人思想观念的重要因素。现代中国人依旧信仰的善恶有报，积德行善等观念都源自于此。

这些金刚力士的面部骨骼造型特点为：高额丘骨、高眉弓骨、深眼窝、高鼻骨、高颧骨；金刚力士的面部五官造型特点为：皱眉、瞪眼、宽鼻、张嘴呵斥或者闭嘴做拒绝状。无论是头骨结构还是五官都能明显看出不是中国人。人面镇墓兽也具有以上所有面部特点<图24~26>。如果说金刚力士是佛在天界和人间的

守护神，那么人面镇墓兽就是死人在阴间的守护神，人面镇墓兽借以金刚力士的造型特点以获得坚硬身躯和大力神的力量，镇守墓主，驱赶恶鬼¹⁶⁾。

人面镇墓兽的面部取自于印度佛教的金刚力士造型，也就是说人面是胡人造型¹⁶⁾。胡人是唐朝对西域所有国家的人民的总称，包括今天的吉尔吉斯斯坦，塔吉克斯坦，乌兹别克斯坦，巴基斯坦，印度，伊朗，阿富汗等约36个国家¹⁶⁾。唐朝与这些国家通商贸易，文化交流¹⁶⁾。所以唐朝是及魏晋南北朝之后又一个民族大融合的时代，唐太宗李世民皇帝被东、西突厥人民（现在的中国新疆，外蒙古，俄罗斯，土耳其等国）称为“天可汗”即全天下百姓的王，继李世民的7代皇帝都曾接受天可汗的尊号¹⁶⁾。所有西域国家的宗教在中国都可以传教，比如原始宗教（包括萨满教）、祆教、道教、摩尼教、景教、伊斯兰教等，当然也包括佛教¹⁶⁾。唐朝是以佛教为主要宗教的多种宗教并存的格局¹⁶⁾。



既然人面镇墓兽的面部特征来源于金刚力士，金刚力士来源于佛教金刚力士造像，佛教来源于印度，那么可以推断人面镇墓兽的面部特征取自于印度人的面部特征，并与同时期的其它佛教金刚力士石窟雕塑、寺院雕塑保持一致的面部特征¹⁷⁾。比如洛阳奉先寺左壁力士石雕<图27>¹⁷⁾、敬善寺力士石雕<图28~29>、敦煌莫高窟194窟力士<图30~31>等¹⁸⁾。



3) 造型与三彩釉结合

16) 西域指的是哪些地方？西域有多少个国家？历史笔记，[DB/CD]，http://www.lishibiji.cn/post/209_all.html，2017-04-11/20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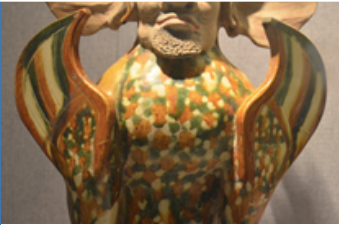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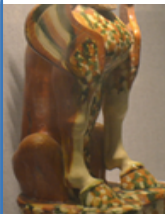
17) 张乃翥(2008)，佛教美术全集5：龙门佛教造像，文物出版社，p144

18) 袁秋实(2015)，龙门石窟力士造像研究，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

唐三彩镇墓兽是低温釉陶器,这种陶器一般用白色粘土作胎,釉料中含有铜、铁、钴、锰等元素的矿物染色剂,经过约800℃的温度烧制而成。所以镇墓兽的釉色呈深绿、浅绿、翠绿、蓝、黄、白、赭、褐等多种色彩。三彩陶器釉料中含有大量的铅,铅的氧化物作为熔剂,降低釉料的熔融温度,在窑炉里烧成时各种着色金属氧化物溶于铅釉中并向四方扩散和流动,各种颜色互相融合,形成灿烂的彩色釉。铅的另一个作用是使釉面光亮度增强,使色彩更加闪亮。¹⁹⁾可能是因为古人意识到铅对人体有害,所以三彩釉只用于陪葬品而不用于生活器皿。据考古发现,三彩釉并不是唐代才突然出现的釉,两汉时期(前202-220年)中国已烧制出铅青釉陶器,南北朝时期(420年-589年)在汉代单色铅釉基础上烧制出黄、褐、绿三色并用的陶器,这些技术为7世纪中叶至7世纪末初唐时期唐三彩的产生奠定了基础。²⁰⁾

唐三彩镇墓兽第三个特征是釉色与雕塑造型相结合,即选择性施釉。主要的上釉方法是大面积浇釉和小面积点釉。大部分兽面镇墓兽的鹿角、脸部、身驱使用大面积浇釉,只有很少一部分镇墓兽用到点釉。釉色随着造型与周围釉色融合,自然往下流动,釉色富有变化。尤其是镇墓兽的鬃毛,翅膀两处比较多地使用点釉法。因兽面镇墓兽面部有精细的五官结构,都未见到用点釉法,而是大面积上釉,以免五官辨认不清。人面镇墓兽的面部则一律不上釉,保持白色素胎;有的也在眼睛,口唇,耳朵施以红色彩绘颜料。其实唐三彩的几乎所有人物陶俑面部都不上釉,比如侍女俑,文官俑,胡人俑等。也许是因为富于变化的三彩釉会造成“花脸”,遮盖面部五官,显得杂乱。

3. 镇墓兽的造型分析

墓兽的造型分析					
鹿角形态	狮头形态	狮鬃毛形态	猪耳形态	鹰翅形态	
					
<图32>兽面镇墓兽的鹿角, 洛阳博物馆	<图33>兽面镇墓兽的狮头, 洛阳博物馆	<图34>兽面镇墓兽的狮鬃毛, 洛阳博物馆	<图35>人面镇墓兽的猪耳, 洛阳博物馆	<图36>人面镇墓兽的鹰翅, 洛阳博物馆	
镇墓兽的造型分析				胡人脸	
狮身或虎身形态	马腿形态	马蹄和鹰爪形态		1.大脑袋 2.皱眉 3.大眼睛 4.宽鼻子 5.张嘴或闭嘴 6.表情可怕	
					
<图37>	<图38>	<图39>	<图40>	<图41>	<图42>

19) 中国硅酸盐学会(2011),中国陶瓷史,文物出版社,p214

20) 范文娟,唐三彩的起源和分期[J],中共郑州市委党校学报,2010(02)

人面镇墓兽的 狮身或虎身， 洛阳博物馆	人面镇墓兽 的马腿，洛 阳博物馆	人面镇墓兽的马蹄 ，洛阳博物馆	人面镇墓兽的鹰爪 ，洛阳博物馆	人面镇墓兽的头部 ，洛阳博物馆	人面镇墓兽的头部， 洛阳博物馆
---------------------------	------------------------	--------------------	--------------------	--------------------	--------------------

4. 镇墓兽陶俑的成型方法

1) 成型方法和烧成

唐三彩镇墓兽同时使用直接成型、模具成型和粘贴成型等雕塑技法。

目前尚未发现明确记载唐三彩镇墓兽制作方法的文献，笔者在陕西历史博物馆访问文物讲解员了解到，唐三彩镇墓兽是大型陪葬俑，造型比较复杂，不同的塑造技法一起使用才能完成。唐三彩镇墓兽是陶瓷雕塑，与其它陶瓷雕塑一样，镇墓兽雕塑应该也会用到人物和动物陶瓷雕塑的制作方法，即混合使用直接成型、模具成型和粘贴成型等。

根据目前的考古发掘，已发现有印着“祖明”二字的镇墓兽陶范，陶范即印坯模具，材料不是石膏而是烧成后的高岭土。王去非在《四神、巾子、高髻》²¹⁾论文中论证“祖思，祖明”是人面镇墓兽和兽面镇墓兽在唐代的名称，这一说法得到中国考古学界的普遍认同。说明唐三彩镇墓兽雕塑有使用到模具成型。据笔者在洛阳博物馆，中国国家博物馆，陕西历史博物馆，西安博物院，河南博物院的实地考察，镇墓兽全身均没有明显的合模线，说明合模线被精心地去掉了，所以不能明确推断哪个部分使用了模具。一般来说，能制作成模具的造型都是可以从模具里取出来的造型。唐三彩镇墓兽全身比较好从模具里取出来的造型是躯干和两只前腿。模具也用泥土制作，有一定吸水率。雕塑的细节直接雕塑成型，比如人面结构和兽面结构，所以笔者从未看见两个一样的人面镇墓兽或兽面镇墓兽。需要雕塑成型的还有鹿角，鬃毛，翅膀，鹰爪。这几部分直接用泥土雕塑完成后，用泥浆粘到主体上，一尊镇墓兽陶坯就完成了。

唐三彩镇墓兽的烧成和所有唐三彩陪葬品的烧成是一样的，等到镇墓兽坯体完全干燥后入窑进行初烧，使坯具有一定强度，不仅方便后续加工，还可以在二次烧成之前筛选出有瑕疵的坯体，减少材料浪费。初烧完成后再使用釉，最后釉烧。

烧制唐三彩的窑址主要在西安和洛阳两大首都的周边地区，有陕西铜川耀州窑址、陕西黄堡镇唐三彩窑址、河南巩县唐三彩窑址、河北内丘和临城、四川邛崃唐代瓷窑，在陕西省西安市醴泉坊窑址出土了镇墓兽残片，可以推断这个窑址在盛唐时期负责烧制唐三彩镇墓兽。²²⁾除此之外，还没发现其他镇墓兽的烧制地点，还有待考古发掘。

2) 土的种类

目前中国学术界并没有专门的唐三彩镇墓兽的泥土分析研究。据《黄冶窑唐三彩原料产地的研究》²³⁾论证，唐三彩陪葬品的泥土是高岭土，镇墓兽作为唐三彩动物雕塑陪葬品的一种，和唐三彩马，骆驼等其他陪葬品雕塑一样，有可能用的都是高岭土。

3) 烧成温度和釉料

唐三彩镇墓兽使用柴窑进行初烧，温度在1100度左右，时长约10小时。釉烧温度为800度，在氧化气氛

21) 王去非,四神,巾子,高髻[J],考古通讯,1956(05)

22) 孙锦(2010),河南地区出土唐三彩研究,郑州大学硕士学位论文

23) 董军领,赵维娟,刘国栋,承焕生,廖永民,张松林,黄冶窑唐三彩原料产地的研究,原子核物理评论,2008(04)

下，含铁量高，烧成温度则应降低²⁴⁾

根据目前出土的唐三彩镇墓兽的釉色效果，上釉工艺主要有点釉，涂釉，浇釉三种。点釉适用于小面积区域，涂釉适用中等面积区域，浇釉适用于大面积区域。唐三彩镇墓兽大部分使用涂釉加浇釉工艺，在鹿角，头部，鬃毛，有细节的翅膀这些地方使用涂釉，并用不同的釉色将不同的结构分开，比如相邻的两片羽毛用不同的釉色。身躯，无细节的翅膀和两只前腿这三个部分因为细节比较少，适合用浇釉工艺，使三彩釉水自然流动；不过，也有镇墓兽全身都是点釉，由绿色，棕色，米色组成斑点。所有镇墓兽中，一部分兽面镇墓兽的面部不施釉，全部人面镇墓兽的面部不施釉，除此之外，镇墓兽的上釉方式没有规律，主要看制作者的感觉。

釉的发色原理表²⁵⁾

颜色	基本釉料	主要呈色剂
乳白色	氧化铅 (PbO) 氧化硅 (SiO_2) 氧化钙 (CaO) 氧化镁 (MgO) 氧化钾 (K_2O) 氧化钠 (Na_2O) 氧化铝 (Al_2O_3) 氧化铁 (Fe_2O_3)	氧化铅 (PbO) 氧化硅 (SiO_2)
银白色		氧化锌 (MgO)
褐红色		氧化铜 (CuO) 硼酸 (H_3BO_3)
棕红色		硼酸 (H_3BO_3) 氧化锰 (MnO_2)
淡黄色		氧化锑 (Sb_2O_3)
深绿色		氧化铬 (Cr_2O_3)
淡青色		氧化钛 (TiO_2)
天蓝色		氧化铜 (CuO) 氧化钴 (CoO)
青黑色		氧化锰 (MnO_2)

5. 唐三彩镇墓兽的消失

755年12月16日至763年2月17日，唐玄宗非常喜爱的唐朝边疆军事将领安禄山（土耳其与伊朗人后裔）发起叛乱战争——安史之乱，向唐玄宗夺取政权，这场内部战争几乎耗尽了唐朝的财富，几年间损失了35,928,723口人，²⁶⁾西安，洛阳已不适合生存，人民生活受到战争影响而大批迁徙到中国南部，唐朝从此

24) 黑丽娜(2019), 唐三彩与辽三彩制作工艺比较研究, 内蒙古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5) 来源：洛阳博物馆唐三彩馆展示图片
26) 《通典卷第七·食货七·历代盛衰户口》：“自天宝十四年至干元三年，损户总五百九十八万二千五百八十四，损口总三千

逐渐走向灭亡。活人的生活都无法保障，更别说花钱为死人准备陪葬品了，唐三彩镇墓兽也逐渐消失于唐朝墓葬中。

虽然唐朝已经不存在了，但唐三彩的影响却没有消失，在中国后来的朝代中出现了辽三彩、宋三彩、明三彩、清三彩；唐三彩陶瓷装饰技法也影响了其它国家，出现了波斯三彩，新罗三彩，奈良三彩和埃及三彩，²⁷⁾证明唐代是一个对外开放，国际交流频繁的时代。不同文明之间相互影响，相互学习才能使文化繁荣发展。

III. 结论

唐三彩镇墓兽有写实性的造型特征，也有表现性的造型特征。

镇墓兽的鹿角以真实的鹿角为造型基础，狮头，狮身，马蹄等也是以真实的动物形态为基础，但组合起来的是不存在的动物。如实模仿真实的猛兽也许就能给雕塑注入猛兽的威力，如果人一看就知道是狮头，鹰翅，马蹄，集合了不同猛兽的攻击力，鬼一看应该也能知道镇墓兽有这些动物的攻击力。用写实手法塑造唐三彩镇墓兽使唐朝人相信镇墓兽真的具有超越所有猛兽的杀伤力。

唐三彩镇墓兽的写实性可能与古代人所信仰的交感巫术有关，即通过对一个物体施加影响，使另一个物体也收到影响。交感巫术这种思维方式在漫长的人类进化中被保留下来，也许是因为人类面对未知的世界难免感到恐惧，人类需要这种思维方式来获得征服大自然的勇气和决心。

唐三彩镇墓兽不仅向现代人展示了唐朝高超的陶俑雕塑技艺，还反映了唐朝的宗教观念的和生死观念，是我们现代人了解唐朝雕塑艺术的重要途径。

图片目录

- <图1> 人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2> 人面镇墓兽局部，洛阳博物馆
- <图3> 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4> 兽面镇墓兽局部，洛阳博物馆
- <图5> 鹿角，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6> 鹿角，人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7> 鹿角，人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8> 狮头，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9> 怒目金刚佛像
- <图10> 狮鬃毛，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五百九十二万八千七百二十三。”

27) 刘利生, 影响世界的中国元素: 瓷器, Google book, [DB/CD], <https://books.google.co.kr/books?id=306IDAAQBAJ&pg=PT41&dq=%E5%9F%83%E5%8F%8A%E4%B8%89%E5%BD%A9&hl=en&sa=X&ved=0ahUKEwikha3zt8PkAhXxG6YKHwDyMQ6AEIMzAB#v=onepage&q=%E5%9F%83%E5%8F%8A%E4%B8%89%E5%BD%A9&f=false>, 2019-09-09

- 〈图11〉狮鬃毛,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12〉狮鬃毛,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13〉狮鬃毛,兽面镇墓兽,中国国家博物馆
- 〈图14〉猪耳,人面镇墓兽,河南博物院
- 〈图15〉鹰翅,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16〉鹰翅,点彩装饰,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17〉鹰翅,浇釉装饰,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18〉鹰翅,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19〉狮身或虎身,人面镇墓兽,河南博物院
- 〈图20〉马腿,人面镇墓兽,陕西历史博物馆
- 〈图21〉马蹄,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22〉鹰爪,兽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23〉金刚力士像,盛唐彩塑,敦煌45窟
- 〈图24〉人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25〉人面镇墓兽,洛阳博物馆
- 〈图26〉人面镇墓兽,河南博物院
- 〈图27〉奉先寺左壁力士局部,石窟雕像,洛阳市龙门石窟,唐代
- 〈图28〉敬善寺右侧力士局部,石窟雕像,洛阳市龙门石窟,唐代
- 〈图29〉敬善寺左侧力士局部,石窟雕像,洛阳市龙门石窟,唐代
- 〈图30〉敦煌莫高窟 194窟北侧力士,甘肃省敦煌市,唐代
- 〈图31〉敦煌莫高窟 194窟南侧力士,甘肃省敦煌市,唐代
- 〈图32〉兽面镇墓兽的鹿角,洛阳博物馆
- 〈图33〉兽面镇墓兽的狮头,洛阳博物馆
- 〈图34〉兽面镇墓兽的狮鬃毛,洛阳博物馆
- 〈图35〉人面镇墓兽的猪耳,洛阳博物馆
- 〈图36〉人面镇墓兽的鹰翅,洛阳博物馆
- 〈图37〉人面镇墓兽的狮身或虎身,洛阳博物馆
- 〈图38〉人面镇墓兽的马腿,洛阳博物馆
- 〈图39〉人面镇墓兽的马蹄,洛阳博物馆
- 〈图40〉人面镇墓兽的鹰爪,洛阳博物馆
- 〈图41〉人面镇墓兽的头部,洛阳博物馆
- 〈图42〉人面镇墓兽的头部,洛阳博物馆

参考文献

王去非(1956).四神,巾子,高髻.考古通讯

- 范文娟(2010).唐三彩的起源和分期.中共郑州市委党校学报
- 王元朝(2013).先秦秦汉从人殉到俑殉习俗演变与比较研究.陕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萧嵩(唐朝).大唐开元礼
- 王溥(北宋).唐会要
- 吕思勉(2005).隋唐五代史.上海古籍出版社
- 魏征(公元629年).隋书
- 李峰,陈涛吉(2008).盛唐镇墓兽形象内涵解读—兼谈镇墓兽所体现的中西文化交流问题.贵州教育学院学报
- 谢山(2014).唐代佛教兴衰研究—以佛教发展与政治社会关系为视角.河南大学博士学位论文
- 樊光春(2008).西北道教历史概论.宗教哲学
- 郅阳(2015).唐三彩镇墓兽猪耳造型的文化意义及其功能转移.中国陶瓷
- 阿里·玛扎海里(2014).丝绸之路:中国-波斯文化交流史.中国藏学出版社
- 葛承雍(2019).猎鹰:唐代壁画与诗歌共创的艺术形象.书画研究
- 张乃翥(2008).佛教美术全集5:龙门佛教造像.文物出版社
- 袁秋实(2015).龙门石窟力士造像研究.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
- 中国硅酸盐学会(2011).中国陶瓷史.文物出版社
- 范文娟(2010).唐三彩的起源和分期.中共郑州市委党校学报
- 杜佑(公元801).通典
- 刘利生(2015).影响世界的中国元素:瓷器.元化文创出版社